

리아후나

**몬슨 회장: 나가서
선을 행하여, 14쪽**

방문 교육에서 중요한 보살핌, 28쪽
복음을 나누는 일에서 이룬 첫 번째
성공, 58쪽
친구 사귄 기회를 놓쳐버림, 60쪽





THE TRUSTEES OF THE WALLACE COLLECTION, LONDON/ART RESOURCE, NEW YORK, NY

이사야, 어니스트 메소니에

칠십인인 랜들 케이 베네트 장로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다른 사도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그에 대해 증거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이번 호 42쪽 참조) 니파이(니파이전서 15:20 참조), 야곱(니파이후서 6:4 참조), 아빈아다이(모사이야서 14장 참조)를 포함하여 현대와 고대의 여러 선지자들은 이사야의 말씀에 대해 간증했다. 하지만 이사야의 말씀에 대해 간증을 전한 더 위대한 이가 있다. 선지자 이사야에 대해 구주 자신께서는 의로운 니파이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이사야의 말이 위대함이라.” 구주는 또한 그들에게 “이 일을 …… 상고하라”고 권고하시면서 “한 가지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이 일을 부지런히 상고하라”고 강조하셨다.(제3니파이 23:1)



리아호나, 2012년 3월호

메시지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7 방문 교육 메시지: 내 왕국에 속한 딸들

특집 기사

14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인생 경험
하이디 에스 스윈튼
선지자의 삶과 성역에 관한 고찰

.....

표지
앞: 사진 촬영: 톰 스마트, Deseret News의 허가를 받아 사용. 뒤: LDS 교회 기록 보관소가 게재를 허가한 사진.

20 복음 문화
델린 에이치 옥스 장르
이 교회에서는 복음 문화에 반대되는 어떠한 개인 및 가족 전통 또는 관습을 중단하라고 가르칩니다.

28 방문 교육: 보살핌의 힘을 이해하며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우리는 방문 교육으로 보살핌 때 더 고귀한 길을 따르며 제자 정신을 보여 줄 수 있다.

33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영향을 미치다
9명의 후기 성도들이 이 책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축복이 되었는지를 말한다.

34 색인 작업에 참여하십시오
헤더 에프 크리스텐슨
여러분이 하는 FamilySearch 색인 작업은 다른 이들이 온라인 상으로 가족 역사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교회 본부 기사

- 8** 10월 연차 대회 노트
- 10**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연차 대회 준비하기
마크 에이 바리오누에보
- 12** 우리의 믿음: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를 지지합니다
- 38** 후기 성도의 소리
- 74** 교회 소식
- 79** 가정의 밤 제언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
미셸 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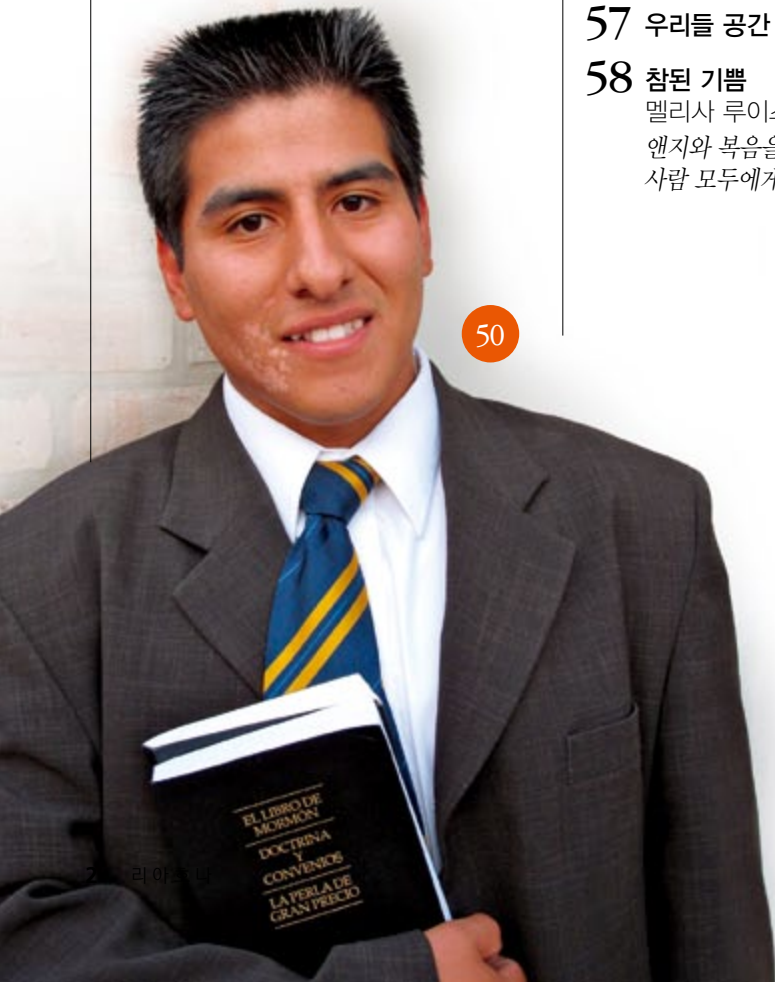


42

42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선지자를
따르라
랜들 케이 베네트 장로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도움말: 벤슨에게
물어보세요.



50

- 46 해답을 찾아서
- 48 포스터: 나의 성전을 보살핌시다
- 49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아모스 3장 7절
- 50 알렉스의 위대한 모범
마이클 알 모리스
알렉스가 가족에게 보인 위대한 모범이 영원한 변화를 가져오다
- 52 어떻게 하면 성전 의식에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성전 예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제안
- 54 홀로 있더라도 절대 혼자 아닙니다
조슈아 제이 퍼키
에콰도르에 사는 후안 카브레라는 유혹에 맞설 힘을 어떻게 찾았을까?
- 56 매일 쌓는 간증
스테파니 구드문슨
극적인 영적 경험을 하기만 한다면, 나에게 간증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57 우리들 공간
- 58 참된 기쁨
멜리사 루이스
앤지와 복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다.



63

- 60 최고의 축구 선수
앤지 버그스트롬 밀러
넌과 친구가 된다면 다른 친구들은 나를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 62 우리들 이야기
- 63 빛을 선택하십시오
게릿 더블유 공 장로
복음은 우리가 빛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줄까요?
- 64 가정에서 초등회 적용하기:
살아 있는 선지자는 옳은 일을 선택하라고 가르치십니다
- 66 지금 바로 결정하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매일 하는 선택이 어떻게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 68 아부, 정직에 대해 깨우치다
앤 피 스미스
아부는 과자를 정말 먹고 싶었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 69 색칠하기
- 7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 81 물론경 경전 인물

2012년 3월호, 제49권, 제3호
리아호나 10483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잡지입니다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아터 예프 우흐트도르프
십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페커, 엘 톨 페커, 라셀 엠 넬스, 달린 에이처 옥스, 엠 라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폴 비 피퍼

고문: 스탠리 지 엘리스, 크리스토퍼 골든 이세, 요시히코 가무피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애덤 시 울슨

공통 편집인: 수잔 배렛, 라이언 카, 멜리사 매릴

편집 스태프: 브리타니 비에티, 데이비드 에이 예드워즈, 매튜 디 플라톤, 라렌 포터 콘트,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리아 맥클라한, 멜리사 매릴,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제이 오데커, 조슈아 제이 퍼키, 채드 이 패리스, 쟈 핀보로우, 폴 벤덴버그, 마리아 에이 위드슨, 멜리사 잔덴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누드슨

미술 책임자: 스킵트 벤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엘 피타스

선임 디자이너: 시 캄벌 보트, 토마스 에스 차일드, 콜린 힝클리, 에릭 피 존슨, 스킵트 엠 우이

제작 스태프: 클레트 네베커 오온, 콘니 바숄프 브릿지,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캐슬린 하워드, 드니스 커비, 지니 사이 닐슨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에반 말슨

통 관: 제545호, 제49권, 제3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2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중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장 가격은 1,0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용문경 용어)는 한국 외의 다른 언어로 출판된 그리스도,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바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1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March 2012 Vol. 36 No. 3.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인터넷 기사 더 읽기

Liahona.Lds.org



성인

바리우노에보 형제는 학교 가는 길에 연차 대회 말씀을 듣는다.(10쪽 참조) 말씀이 담긴 오디오 파일은 conference.lds.org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청소년

컴퓨터에 능숙한 여러분은 가족 역사 사업을 도울 수 있다. 34쪽에서 "전 세계 색인 작성자들을 소집함"을 읽어 보고 indexing.familysearch.org에 접속해 본다.

어린이

다음 달이면 연차 대회가 열린다.(64쪽 참조) 연차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conferencegames.lds.org에 접속해 본다.

이번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가 실린 첫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 가족 역사, 34
- 가족, 20, 50
- 간증, 56, 58
- 결혼, 20
- 경전, 4, 57
- 모범, 50
- 물문경, 57
- 방문 교육, 28
- 봉사, 14, 39
- 상호부조화, 28
- 선교 사업, 40, 41, 50, 57, 58
- 선지자, 4, 14, 42, 49, 64, 73
- 선택의지, 66
- 성신, 20, 42, 62, 70, 72
- 성전 사업, 38, 52, 57
- 성찬, 47
- 순종, 20, 42, 66
- 신성한 성품, 7, 20
- 십일조, 20
- 여성, 7
- 연차 대회, 4, 8, 10, 12, 64, 69
- 육신, 48
- 자립, 42
- 전통, 20
- 정직, 68
- 제자 정신, 7
- 지지, 12
- 축복, 8
- 친절, 60
- 표준, 54
- 회개, 9, 46, 80
- 희생, 80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www.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 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안내와 인도 없이 우리 혼자서 이 필멸의 삶을 헤쳐 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은 시중에 파는 책 내용처럼 흔하거나 진부하거나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지전능하시며 자녀를 사랑하시는 천상의 존재의 지혜입니다. 현세와 내세에서 얻는 행복의 열쇠, 만고의 비밀이 그분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종인 선지자들을 통해 지상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 지혜를 나타내 보이십니다.(아모스 3:7 참조) 아담 시대 이래 하나님은 선택된 선지자들을 통해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들은 그분의 뜻과 권고를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선지자는 영감을 받은 교사로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입니다.(교리와 성약 107:23 참조) 선지자는 당대뿐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 뜻의 증거로서 수 세기에 걸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역시 옛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께서 과거 사람들에게 비해 현대인들을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전하는 놀라운 메시지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자녀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고대처럼 오늘날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선지자들에게 드러내시는 것의 상당 부분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닥칠 슬픔을 미리 막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 자녀를 가르치고, 영감을 불어넣으며, 정화하고 경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사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무시한다면 시련과 고통, 환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자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고자 하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것처럼 중요하고 때로는 긴박한 것도 그런 까닭입니다. 그분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해 뜻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와 세상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듣고 상고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는 값진 가르침은 성경과 물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에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주님은 그분의 종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돌아오는 연차 대회에서도 또다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의심하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모든 분께 저는 진심으로 “와서 보라”(요한복음 1:46)고 권하겠습니다. 경전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후기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차 대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와서 들으시고 마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모로나이서 10:4) 그 힘을 통해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며, 살아 있는 선지자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을 통해 그분의 교회를 이끌고 계시다는 점을 압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그분은 모든 자녀들이 그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상고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은 현세와 내세에 걸쳐 우리를 크게 축복하고 지지하실 것입니다. ■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

선지자와 사도들의 거룩한 사업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연차 대회가 끝나고도 계속 세상에 가르침과 성역을 베푼다. 교회 웹사이트인 LDS.org에 있는 ‘현대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 부분에는 여러 언어로 된 동영상과 사진, 기사가 있어 교회 지도자들이 베푸는 성역을 알려 준다.

그와 같은 자료를 통해 선지자와 사도들이 행하는 성역을 알 수 있으며 구주에 대한 그들의 간증을 듣거나 읽을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들이 솔트레이크시티 교회 본부나 다른 곳에서 나누는 간증과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시청하거나 읽을 수 있다.

[lds.org/study/prophets-speak-today](https://www.lds.org/study/prophets-speak-today)에 접속하면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을 더 볼 수 있다.

살아 있는 선지자가 인도하는 교회

크리스티 리파

나는 열여섯 살 때 처음으로 연차 대회에 직접 참석했다. 우리 가족은 미국 오리건 주 서부에 살았는데, 연차 대회에 참석하고 오빠를 선교사 훈련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차를 타고 유타로 갔었다.

나는 성신을 통해 배우고 싶은 소망을 안고 연차 대회에 참석했다. 그 결과,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받지 못했을 증거를 영으로부터 받았다.

모임 중에 모두가 일어서서 “위대하신

여호와여”를 회중 찬송으로 불렀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던 중 컨퍼런스 센터를 둘러보라는 분명한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에 따라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그곳에 모인 수천 명이 모두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찬양드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건물 안에 깃든 일체감에 큰 감명을 받았다.

영이 나에게 “보라”(니파이전서 11장~14장 참조)고 말했기에 나는 마치 내가 생명나무 시험을 본 니파이 같다고 느껴졌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을 바라보면서 살아 있는 선지자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단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성령의 증거로 몬슨 회장님이 우리 시대의 참된 선지자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통해 이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



노아
오른쪽으로



모세
아래로



멜몬
왼쪽으로



모로나이
왼쪽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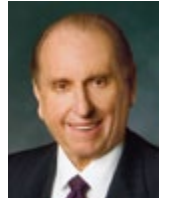
침례 요한
오른쪽으로



베드로
오른쪽으로



조셉 스미스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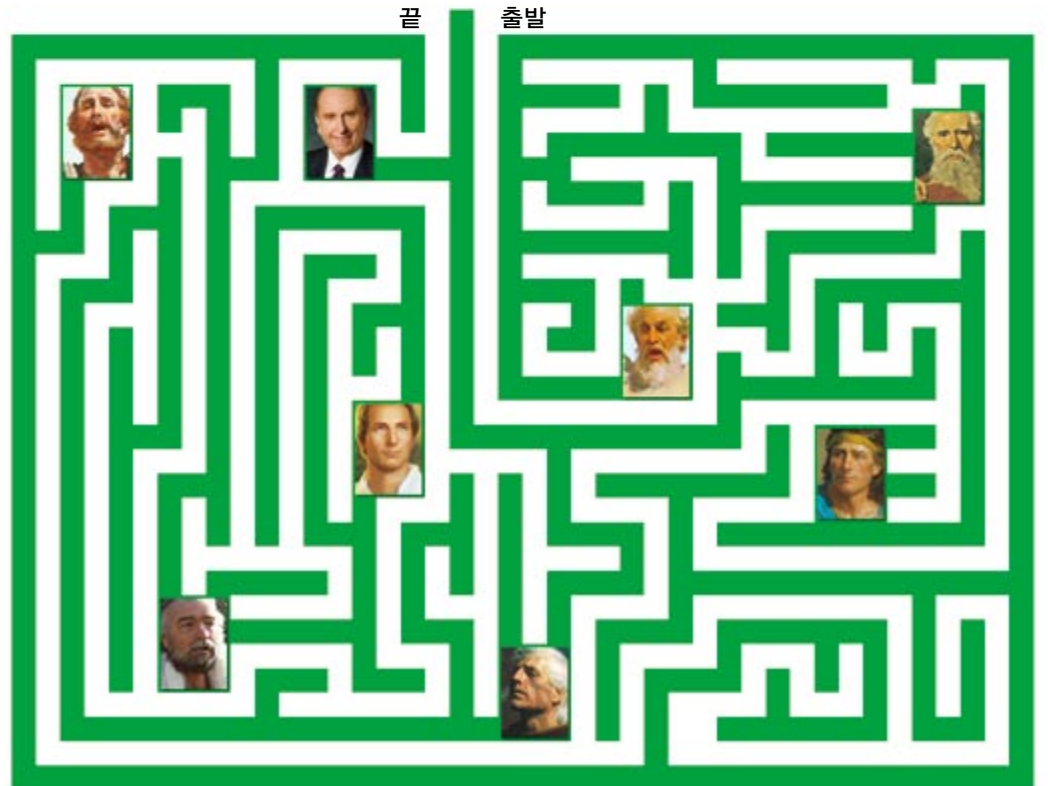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위로

선지자를 따를 때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며, 우리는 그 덕분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각 선지자가 전하는 지시를 따르면 미로를 빠져 나갈 수 있습니다. 방향을 표시하고 있는 위 사진과 미로 속의 각 사진을 맞춰 보세요.





이 자료를 공부하고, 상황이 적절하다면 방문하는 자매들과 토론한다.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매들을 강화하고 또한 상호부조회의 가르침을 여러분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 계획에 따라 우리는 지상에 와서 악이 아닌 선을 택하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딸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한다. 상호부조회 덕분에 우리는 이 신성한 유산을 기억한다.

상호부조회와 그 역사는 우리를 강화하고 지지한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줄리 비백 자매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여러분은 영원한 지위를 얻기 위해 준비하는 하나님의 딸이며, 여러분 각자에게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본질,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 주는 충실함에 따라 가족과 지역 사회, 교회, 그리고 소중한 구원의 계획의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 주님은 상호부조회에게 그분의 백성을 강화하고 성전 축복을 받도록 준비하는 일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조직을 세워 그분의 딸들이 그분의 일과 보조를 맞추며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고 시온의 가정을 강화하는 일을 돕도록 요청하셨습니다.”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왕국 건설을 돕도록 우리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주셨다. 또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영적 은사를 축복해 주셨다. 상호부조회에서 우리는 그 은사를 활용하여 가족들을 강화하고 사람들을 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제자 정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끈기 있게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신앙의 척도를 나타내 보이고 우리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입증합니다.”²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분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 노력하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도록 돕고 그분 면전으로 돌아가기에 합당해질 것이다.

성구에서

스가랴 2:10; 교리와 성약 25:1, 10, 16; 138:38~39, 56;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하나님의 딸로서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자매들을 도울 수 있을까?
2. 교리와 성약 25편에서 여성들에게 주어진 권고와 경고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신앙, 가족, 구제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1842년 4월 28일,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어 주신 동정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 여러분이 받은 특권에 따라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천사가 여러분과 친구가 되는 데 아무런 제약도 없을 것입니다.”³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신앙을 키우도록 돕는 상호부조회의 힘을 아는, 제3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지나 디 에이치 영 자매는 1893년에 자매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주님 영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본다면 여러분은 값진 진주, 즉 이 사업에 대한 간증을 찾게 될 것입니다.”⁴

주

1. 줄리 비백,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일”, 리아호나, 2010년 11월, 112, 114쪽.
2.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제자의 길”,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76쪽.
3. Joseph Smith, *History of the Church*, 4:605.
4. Zina D. H. Young, “How I Gained My Testimony of the Truth,” *Young Woman’s Journal*, Apr. 1893, 319.

10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2011년 10월 연차 대회를 복습하면서 다음 내용(그리고 향후 리아호나에 실릴 연차 대회 노트)을 활용하여 살아 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께서 주신 최근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대회에서 발췌한 이야기

황금빛 초대장

“의로운 신권 소유자와 성전에서 결혼하여 어머니와 아내가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던 한 의로운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온통 그 꿈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멋진 어머니가 되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어야지. 집안에는 사랑과 친절이 넘치고 격한 말은 절대로 오가지 않을 거야. 음식을 태우는 일도 결코 없고 말이지. 자녀들은 저녁 시간과 주말에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보다는 아빠 엄마와 함께 지내고 싶어할 거야.’ 하는 꿈 말입니다.

그녀에게는 바로 그 꿈이 황금빛 초대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 한 가지에 달렸다고 느꼈습니다. 세상 모든 것 중에서도 그것만을 애타게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외톨이가 되어 갔으며, 억울해하고 심지어 화도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소망을 도대체 왜 들어주시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저 황금빛 초대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실망은 깊어 갔고 더욱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 곁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았고, 되도록 그녀를 피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의 좌절감을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비극은, 이 사랑스러운 여성이 황금빛 초대장을 손에 넣지 못한 실망감에 휩싸여 자기가 받은 축복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비록 자기 가정에 자기 아이는 없었지만 교실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주님은 남들이 좀처럼 얻기 어려운, 교사로서 수많은 아이들과 그 가족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그녀에게 주고 계셨습니다.

이 일화는 환상적인 장미만을 기다리며 매일을 허비하다가는 주위에 가득한 조그만 물망초가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로운지 보지 못하게 된다는 교훈을 알려 줍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물망초”,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121~122쪽.

생각해볼 질문:

- 여러분의 “황금빛 초대장”은 무엇이며 그 초대장이 어떻게 여러분이 이미 받은 축복을 깨닫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까?
- 여러분이 삶에서 간과할 수도 있는 “작은 물망초”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일지에 기록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이 주제에 대한 추가 자료: LDS.org의 Study by Topic(주제별 학습), “Gratitude(감사)”;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행복, 여러분의 유산”,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117~120쪽.

연차 대회 말씀을 읽거나 시청 또는 청취하시려면 conference.lds.org를 방문하십시오.

사랑받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친절해집시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님을 소망하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73쪽.

선지자의 약속

“**일**단 교회 복지 계획에 대한 교리와
원리를 연구한 다음, 여러분이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배운
내용을 적용하십시오. 결국 여러분 스스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 결국 각 경륜의 시대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한 것처럼 여러분의
지역에서 해야 합니다. 함께 협의하고, 모든
자원을 활용하며, 성신의 영감을 구하고,
주님께 확증을 구한 뒤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하러 나서야 합니다.

약속을 드리건대, 그렇게만 한다면
주님의 방법으로 베푸는 일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주님의 방법으로 베푸십시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55쪽.

초대장

“초대합니다

누구를: “교회의 청소년

무엇에: “엘리아의 영에 대해 배우고 직접 경험해
보도록

어떻게: “조상에 대해 연구하고 찾아서 죽은
친족들을 위해 주님의 집에서 대리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자녀들의
마음은 돌이켜질 것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26쪽.

학습 코너

유사한 개념 찾기: 회개

연차 대회 연사들은 종종 동일한 원리를 일부 가르친다. 다음은 네 명의
연사가 회개에 대해 말씀한 내용이다. 연차 대회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와 같은 유사한 개념을 찾아보도록 한다.

- “인생 여정에서 실수로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의심할
여지 없이 돌아오는 길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과정은 회개라고
부릅니다.”¹—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크든 작든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하고, 길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만이 상처를 낮게 할 수
있습니다.”²—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 “여러분이 누구이든, 어떤 일을 했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용서의 기적입니다. 바로 속죄의
기적입니다.”³—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우리는 회개를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따른 은혜와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회개는 신성한 은사입니다. 우리는 웃는 얼굴로
회개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⁴—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용감하게 홀로 서라”,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62쪽.
2. 보이드 케이 패커, “청소년들에게 주는 권고”,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18쪽.
3. 제프리 알 홀런드, “싸움 끝나는 날까지”,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45쪽.
4.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회개는 신성한 은사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38쪽.



연차 대회 준비하기

우리 가족은 연차 대회를 준비하며 일상 생활에
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마크 에이 바리오누에보

우 리 가족은 연차 대회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난 연차 대회에서 전해진 권고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내는 짬이 날 때마다 리아호나 연차 대회 특집호를 읽는다. 그런 후 배운 것을 적용하고자 노력한다. 예를 들면 기도의 질을 향상시키라는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 말씀을 통해 두 개구쟁이 아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사랑을 좀 더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하게 되었다고 한다.¹

나 또한 지난 연차 대회를 복습하고자 노력한다. 매일 아침 학교로 걸어가는 길에 말씀 하나를 들은 후 생각하고 기도함으로써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마음과 정신에 스며들게 한다. 나는 다가오는 하루, 그리고 남편, 아버지, 후기 성도, 학생, 시민으로서 내가 맡은 책임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한다.

어느 날 아침, 엘 톱 페리 장로님이 전하신 “성실함으로 할 것이니라”라는 말씀이 특히 내 상황에 해당된다고 느껴졌다.² 페리 장로님은 월든이라는 책에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가르친 원리를 영성을 키우고 세상의 압박에서 풀려나 삶을 단순화하는 것에 적용하셨다. 내 학교 일 때문에 우리 가족은 함께 외출하는 일이 드물어, 어쩌다 갖는 그런 기회는

무척 소중하다. 페리 장로님 말씀을 듣기 전 해 여름, 우리 가족은 월든 호수로 가서 소로우의 오두막집을 재현한 건물 안에서 잠시 사색을 한 적이 있다. 나는 그날 오후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과 월든 호수에 들어가 놀기도 하고 호숫가를 걷거나 호숫가에서 모래성을 지으며 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가족이 즐겁게 누린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물들에 대해 감사를 드렸다.

몇 개월 후, 눈 덮인 인도를 터덜터덜 걸으며 나는 행복했던 그 여름날을 떠올렸다. 그 경험과 페리 장로님 말씀 덕택에 나는 복음을 중심에 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다.

각자 말씀을 듣는 것 외에도 우리 가족은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에 갈 준비를 하면서 컴퓨터로 연차 대회 말씀을 같이 듣는다. 아내와 나는 네 살 된 우리 아들이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며 동생을 조용히 시키는 모습을 본 적도 있다.

현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우리 구주의 가르침은 우리 가족에게 축복이다. 항상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도록 노력하자 성신이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는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가사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³
 연차 대회에서 전해진 권고를 자주 공부함으로써 아내와 나는 다음 연차 대회가 돌아올 즈음이면 주님이 최근에 주신 가르침을 더욱 확고히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영적으로 교화되었으며, 주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통해 그분의

가르침을 좀 더 준비된 상태로 듣게 되었다.

■

주

1.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항상 기도하라”, *리아호나*, 2008년 11월, 41~44쪽 참조.
2. 엘 톰 페리, “성실함으로 할 것이니라”, *리아호나*, 2008년 11월, 7~10쪽 참조.
3.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찬송가*, 6장.

연차 대회에 집중하기

연차 대회에서 배우기 위해, 지난 대회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생각해 본다.

- 연사들의 말씀을 통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금식한다.
- 구체적인 질문을 염두에 두고 연차 대회를 시청한다.
- 말씀 듣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집안일과 장보기, 그 밖의 다른 일들을 연차 대회가 시작하기 전에 끝낸다.
- 영감을 받을 수 있게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 연차 대회 전날 밤에 꼭 쉬도록 한다.
- 말씀 들을 때 받게 된 느낌과 속삭임, 가르침을 적어 둔다.

이 주제에 관한 추가 정보

다 음 기사들은 LDS.org에서 볼 수 있다.

1. 폴 비 존슨, “연차 대회의 축복”,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50~52쪽.
2. “Preparing Our Children for General Conference,” *Ensign*, Mar. 2009, 23–27.

우리는 지도자를 지지합니다

후 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영감으로 그분의 교회를 이끌 선지자와 사도들을 부르십니다. 예를 들면, 주님은 칠십인 같이, 교회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부를 권세를 이 지도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와 칠십인은 스테이크 회장을, 스테이크 회장은 감독을, 감독은 각각 와드 내 여러 직분에서 봉사할 회원을 부릅니다. 따라서 교회 전체로부터 지역 회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부름은 신권과 계시로 인도됩니다.

우리는 각 부름을 받은 이들을 지원하고 도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지지할 기회를 받습니다. 연차 대회, 스테이크 대회, 와드 대회, 혹은 성찬식 모임에서 그들의 이름이 호명될 때 우리는 오른손을 들어 그들을 기꺼이 지지하겠다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우리 자신과 부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 그들을 지지하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지지하기 위해 손을 드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떤 직책으로 선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부름 받은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이미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부름을 줄 수 있는

신권 권세를 지닌 지도자가 부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가 지지하는 신권 지도자를 통하여 주님께 부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의미로 손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총관리 역원 및 지역 지도자와 역원들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의 신앙을 행사하고 기도한다.
 - 지도자들의 조언을 따른다.
 - 지도자들이 요청할 때 도움을 준다.
 - 지도자들이 주는 부름을 받아들인다.
- 지도자들을 지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선의와 신앙, 제자 정신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



이러 사진 촬영: 존 토크; 오른쪽 사진 촬영: 리슬리 뉴스; 사진 삽화: 크레이그 데이먼드, 윌슨 시멘타

3. 지도자들의 조언을 따름으로써 그들을 지지한다.



1. 교회 총관리 역원을 지지한다.



2. 지역 지도자 및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은 이들에게 손을 들어 지지를 보일 수 있다.



4. 부름을 받아들임으로써 지도자를 지지한다. 부름은 “권세 있는 자에 의[해]”(신앙개조 제5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더 알아보고 싶다면 다음을 참조한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98), 24장;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2011), 6장.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어서 주님 및 서로와 맺으신 서약을 따를 것이라는 표시로, 여러분께서 …… 다양한 이 모든 조직의 역원들을 옹호하고 지지하겠다는 표시로, …… 그들을 돕기 위해,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그들이 관여하고 있는 선한 사업에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겠다는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98), 219쪽.

5.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지지한다.(교리와 성약 107:22 참조)



왼쪽: 흥기 생도 교회 건물. 보관소의 위기는 사진 게재. 오른쪽: 사진들. 톰 스미트, 스투아트 존슨, 제리 애번
타워링, 뉴스의 위기는 게재. 연차 대회 사진. 크레이그 데이먼드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인생 경험

하이디 에스 스윈튼

영국 런던 남부 선교부 회장인 남편과 함께 봉사하고 있던 2008년 6월 18일, 전화 벨이 울렸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였다. 그분은 특유의 친근한 말투로 운을 떼셨다. “선교부는 요즘 어떻습니까? 가족은 잘 지내나요? 영국 생활은 어떤가요?” 곧이어 잠시 멈추고서 이렇게 덧붙이셨다. “우리 프랜시스 자매와 이야기해 보고 기도를 해 봤는데, 자매님이 제 전기를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말할 나위 없이 그것은 나에게 영예로운 일이었으며, 이내 가슴이 벅차올랐다. 뒤이어 그분은 내가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한다면 귀환할 즈음에 절반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3년 임기 중 1년이 남아 있을 때였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신다. “주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주님이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¹ 나는 그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게 되었다.

선지자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것은 컴퓨터 키보드에서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두 무릎을 꿇고 시작해야 할 일일 것이다.

나는 일찍이 이 과업이 날짜와 시간, 장소와 여행 등을 개략적으로 이야기하는 전형적 전기와 다르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것은 세상이 있기 전에 준비되어 “후기에 우리를 인도하도록”²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 관한 저술이었다. 그때의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은 *겸허한 마음*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아마도 두렵고, 버거우며, 간절한 느낌이 바로 그 뒤를 잇는 표현일 것이다.

주님은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라고 하셨다. 나는 1963년 토마스 에스 몬슨의 거룩한 사도 직분 부름 이후 주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듣는 일부터 시작했다. 나는 몬슨 회장님께서 여러 상황에서 하신 수많은 말씀을 수 개월에 걸쳐 읽었다. 여러 저명한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 회장들의 전기를 모두 독파했다. 몬슨 회장님의 조상이 살았던 스코틀랜드와 스웨덴, 영국의 초기 교회를 연구했다. 청소년 시절 그분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 경제 대공황을 공부했으며, 제2차 세계 대전과 그 여파로 분단된 독일을 연구했다.(몬슨 회장님은 20년 동안 이 지역 교회를 이끄셨다.) 자신의 가족을 위해 1985년 저술한 자서전과 47년간 날마다 기록하신 일지를 읽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그분과 같이 일했던 교회 지도자들과 그분의 성역에 큰 감명을 받은 회원들을 만나 보았다. 아울러 소중한 친구이자 역사학자인 ‘트리샤 에이치 스토키’에게 부탁하여



왼쪽: 1967년 몬슨 장로였던 몬슨 회장, 교회 행정 건물 계단에서. 맨 위부터: 2011년 집무실에서, 2002년 브리검 영 대학교 조셉 애스 스미스 빌딩 기공식에서 엠 러셀 벨라드 장로와 함께, 2010년 하와이 라이에 성전 재헌남식에서, 2008년 4월 연차 대회 후 부인 프랜시스와 함께.



맨 위: 1960년대 몬슨 회장 사진. 위: 독일 회원과 선교사들과 함께. 아래 왼쪽부터: 제6와드와 제7와드 감독으로 두 보좌와 함께; 보이 스카우트와의 대화; 1965년 통가 선교부 방문.

연구에 필요한 도움을 받았다. 그녀는 몇몇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교재 편찬 위원회에서 봉사했으며, 선지자의 생애에 대해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를 알았다.

영국에서 매월 화상으로 몬슨 회장을 인터뷰했고, 미국 유타 주 집으로 귀환한 뒤에는 14개월 동안 그분 사무실에서 직접 인터뷰를 했다. 나는 항상 마치 우리가 부엌 식탁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분은 어린 시절과 가족에 대해, 그리고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님에게서 부름 받은 일을 이야기했고,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1871~1961) 회장님, 해럴드 비 리(1899~1973) 회장님, 마크 이 피터슨(1900~1984) 장로님과 같은 스승에게서 받은 영향을 이야기했다.

그분은 가정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생활하는 것에 대해 배웠다. 그분의 집에서 이웃의 삶을 고양하고 축복하고자 하는 소망과 열정,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랑인 자애는 기본이었다. 부모님이 경전을 읽어 주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은 집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실천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그분의 열망은 대공황의 절정기 때 솔트레이크시티 서부 지역, 그가 즐겨 말하듯 “철도 트랙 사이에서” 자라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웃과 친구들은 물질적으로는 별로 가진 것이 없었지만 서로가 가까웠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분과 친했던 삼촌들 몇몇을 포함하여 가깝게 지낸 사람들 다수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다. 종교가 장애가 되지는 않았으며, 그분은 사람 그 자체를 사랑했다. 부모님은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여셨다. 몬슨 회장님은 그와 같은 정신적 터전을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다.

그분은 비범한 사람으로서 만나는 사람 모두를 한결같이 존중하며, 그들의 삶과 고민,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분이 내방 중인 외국 저명 인사에게 보이는 관심은 밤에 그분의 책상을 닦는 사람에게 보이는 관심과 똑같다. 그분의 위대함을 측정할 수 있는 잣대 중 하나는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만나는 사람 그 누구로부터도 뭔가 배울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몬슨 회장이 말씀하시듯 조직이란 그 지도자가 뜻하는 바에 힘을 실어주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 조직을 구성하는 우리 후기 성도들은 이웃 한명한명을 구조하고 함께하며 복돋우고 고양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은 구주의 모범을 반영하는 것이다. 경전에 나오듯이 주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 하나님께서 하셨다.”(사도행전 10:38)

오래 전부터 몬슨 회장은 우리가 좀 더 구주와 같이 되기를 권고하셨다.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을 인터뷰했을 때 그분은 내가 이해하는 바를 확인해 주셨다. 패커 회장님 말씀에 따르면 몬슨 회장은 “우리보다 더 그리스도를 닮은 분”이라는 것이다.⁴

몬슨 회장은 반세기가 넘도록 궁핍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 주셨다. 아프거나 연로한 사람들 침상 곁에 앉아 주셨다. 병원과 가정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다. 차를 돌려 한 친구를 급히 방문하고서, 또 다른 친구 장례식 조사를 전하기 위해 모임에서 급히 떠나야 했다.(그분에게 친구 명단의 숫자에 대해 묻는다면 적어도 “1,400만 명”이라는 답변을 들을 것이다.)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있어 그분에게 오기 힘든 사람을 찾아가고, 한 무리의 십대들에게 ‘하이파이브’를 해 줄 뿐만 아니라 앞줄의 집사들 말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그분은 “알려지지 않고, 인정받지

요컨대 몬슨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실천해야겠다고 생각만 하는 일을 실행으로 옮기시는 분이다.

못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알아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경의를 표하신다.

요컨대 몬슨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실천해야겠다고 생각만 하는 일을 실행으로 옮기시는 분이다.

그분의 메시지는 복음 원리를 가르치는 진실한 기사(그분은 ‘이야기’라고 하지 않는다.)로 가득하다. 그분은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 자신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행동은 좀처럼 세상의 감탄과 눈길을 끄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대개 우리의 사랑은 일상에서 이웃과 나누는 교류를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⁵

그분이 전 세계에서 성역을 베푸는 동안 체험했던 흥미로운 일들 일부는 어쩌면 철의 장막 뒤에서 교회를 지휘하던 시절에 있지 않았을까? 2009년 남편과 나는 선교 사업을 마치고서 독일로 여행하여 몬슨 회장이 걸었던 땅을 걸었다. 그분이 그토록 사랑했던 회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절에 하신 봉사의 영향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찾아낸 분들은 진심 어린 신권 소유자들로, 그들은 그분의 꾸준한 방문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 격려와 애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지금은 버려진 채 황폐해진 괴를리츠 지역의 공장 건물에 들어섰다. 1968년, 몬슨 회장은 그곳의 헬썬한 모습의 동독 후기 성도들 앞 연단에 서서 주님이 충실한 자녀들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모든 축복을 약속했었다. 그들은 그날 열정적으로 찬송가를 불렀다. “시련에 시달려도, 포기하지 말자! 궁핍이 극심해도, 포기하지 말자! …… 더 환한 날이 오리니”⁶ 제일회장단의 지휘 아래 그분이 성도들의 구조에 나선 것이었다. 20년 뒤 베를린 장벽이 여전히 견재하는 상태에서 이 동독 후기 성도들은 스테이크와 집회소, 축복사와 선교사, 성전을 갖게 되었다. 그 뒤 장벽이 무너진 후 성도들은 한 국가로서 가족들과 재결합했다.

살면서 늘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을 얻는다고 강조하시며 몬슨 회장은 종종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⁷

훌륭한 동독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인 헨리 부크하트는 20년간 그 나라의 모든 중요한 행사 현장에 몬슨 회장과 함께하며 긴밀하게 일했다. 부크하트 형제님은 그 시절 철의 장막 뒤에서 교회의 대 정부 대표로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충실하게 봉사한 분이다. 그분은 여러 직무 중에서도 교회



지도자로, 또한 프라이버그 성전 회장으로 봉사했다.

나는 그분에게 몬슨 회장님의 성역 가운데 어떤 것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지 물었다. 혹시 괴를리츠 모임을 언급하지 않을까? 아니면 1975년 동독 헌납이라고 대답을 할까? 아니면 최초의 스테이크 조직? 프라이버그 성전 헌납, 혹은 동독 공산당 최고위 관리였던 호네커를 만난 일을 언급할까? 당시 몬슨 회장님은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또는 여기 선교사들이 이 나라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벽을 순찰하던 사살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요청은 거의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호네커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수년간 당신들을 지켜보았으며 이제 당신들을 신뢰합니다. 승인하겠습니다.” 부크하트 형제님은 이와 같은 사건들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1979년 12월 2일입니다.”라고 대답하면서 그분은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일어난 주요 사건을 연상할 수 없는 나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다.

“그날 몬슨 회장님께서 동독으로 건너와 제 아내 잉에에게 축복을 주셨죠.” 몬슨 회장님은 특별한 임무가 없는 주말을 맞아 오직 그와 같은 목적으로 미국에서 독일로 날아간 것이다. 부크하트 자매는 수술 후유증으로 9주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병세는 악화되고 있었다. 몬슨 회장님은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는 우리 신앙과 기도를 모아 그녀를 축복했다.”⁸ 그분은 수개월 만에 찾아온 자유로운 시간에도 구조를 하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간 것이다.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다? 궁핍한 사람 도왔나?’ 참으로 훌륭한 행복 공식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영감에 찬 감사를 갖게 하는 것은 만족감과 내적 평화를 위한 참으로 훌륭한 처방전이 아니겠습니까! 기쁘게 해 줄 마음들이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친절한 말들이 있습니다. 베풀 선물들이 있고 행할 행위들이 있습니다. 구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⁹

오른쪽: 2002년 일리노이 나부 성전 헌납식에서 몬슨 회장과 자매. 오른쪽 페이지에 계속: 교회 회장으로 지지를 받았던 2008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말하는 몬슨 회장, 2009년 유타 오커 마운틴 성전 정초식에서, 2011년 6월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오랜 친구와 함께.

몬슨 회장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웃에게 손길을
뻗으라고 깨우쳐
주신다.

바로 그런 것이 몬슨 회장님의 성역이다. 그분은 언제나 외롭거나 지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미신다. 십이사도 정원회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주께서 토마스 몬슨을 크게 키운 것은 그의 마음 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¹⁰

2008년 6월 1일, 선지자는 브라질 쿠리티바 성전을 헌납했다. 그때

그분은 한 소년을 불러내 정초식에서 자신을 돕도록 했다. 한 사진사가 사진을 찍기 위해 누군가에게 소년의 모자를 벗겨 달라고 부탁했다. 소년에게는 머리카락이 없었는데, 틀림없이 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았다. 몬슨 회장님은 팔로 따뜻하게 소년을 감싸고서 벽에 모르타르를 바르는 것을 도우셨다. 회장님을 수행하는 사람 중 한 명이 헌납식을 제시간에 마치려면 이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일러 주었다. 그러나 몬슨 회장님은 고개를 가로 저으며 “아니요. 한 사람을 더 부르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고는 이내 뒷줄의 한 여성에게 눈길을 주셨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 그분은 그 여성에게 손짓하며 앞으로 나오도록 했다. 팔로 상대를 감싸고서 다정하게 그녀를 벽까지 인도하여 주춧돌 봉인 마무리를 하도록 했다.

헌납 이튿날, 헌납식에 함께 있었던 십이사도 정원회 러셀 엠 벨슨 장로님은 그 여성이 소년의 어머니인 줄 어떻게 아셨느냐고 몬슨 회장님에게 물었다.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안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신 것입니다.”

소년이 숨진 것은 그 뒤로 몇 달 지나지 않은 때였다. 벨슨 장로님은 이렇게 덧붙였다. “헌납식에서 있었던 그 일이 그 어머니에게 주는 의미를 상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알고, 너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도와주고 싶으니라.’ 바로 그러한 분이 하나님의 선지자이십니다.”¹¹

사람들이 함께 만나 나누는 것을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이 대신하는 이때, 몬슨 회장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웃에게 손길을 뻗으라고 깨우쳐 주신다. 그분은 자신에게 편지를 보낸 한 회원의 말씀을 통해 이 메시지를 나누었다. “사람들의 기도는 거의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으로 응답을 받습니다.”¹² 그분은 간혹 주님의 권고를 인용한다. “내가 너희 앞서 나아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교리와 성약 84:88) 몬슨 회장님은 우리가 때때로 그와 같이 서로를 위한 천사가 되는 것을 고마워하신다. 엘마는 물문의 물에서 성도들이 “끼끼이 서로의 짐을 저 가볍게 하[도록] 했다.(모사이야서 18:8) 몬슨 회장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성약을 실천하도록 권유하신다.

나도 이웃의 짐을 저 주시는 그분에게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었다. 내가 그분의 전기를 써야 할 책임의 무게로 힘들어 한다는 것을 어느 날 그분이 알아챘다. 곧이어 그분은 나를 사무실로 불러 온화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한 나는 나 자신이 부적합하다는 생각, 과업의 막중함, 그리고 수집하고 편집하며 종합해야 할 자료의 방대함 같은 문제를 토로했다. 나는 그분을 위해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싶었다. 우리의 대화는 가장 값진 필멸의 경험 중 하나가 되었다. 나는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기분이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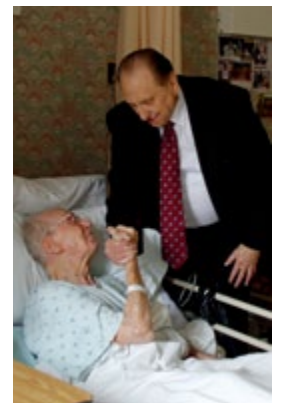
구주께서 거적을 걷으시고 손을 뻗어 나를 안아 올려 주시는 것 같았다. 몬슨 회장님은 속죄의 구원 권능을 이해하셨고, 이웃을 들어올리도록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은 하나의 특혜라고 여겼다.

“손을 뻗어 늙은 사람과 과부, 아프고 불편한 사람, 저활동 회원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또 권고하셨다. “그들에게 동정의 마음과 도움의 손길을 뻗으십시오.”¹³

이웃에 대한 존중과 관심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간증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배우고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써 주님과 같이 되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바깥음이 빨라지고 시야가 넓어집니다. 삶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여 갑니다.”¹⁴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Duty Calls,” *Ensign*, 1996년 5월호 44쪽 참조.
2.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찬송가, 6장.
3. Kellene Ricks, “BYU Leader Begins ‘Lord’s Errand,’” *Church News*, 1989년 11월 4일, 3면 참조.
4. Boyd K. Packer, Heidi S. Swinton, *To the Rescue*(2010년), 1쪽.
5. Thomas S. Monson, “To Love as Jesus Loves,” *Instructor*, 1965년 9월, 349쪽.
6. “If the Way Be Full of Trial, Weary Not,” *Deseret Sunday School Songs*(1909), no. 158; “인내—천국의 미덕”, 토마스 에스 몬슨, *리아호나*, 2002년 9월호, 7쪽 참조; *Ensign*, Nov. 1995, 61쪽.
7. Thomas S. Monson, *To the Rescue*, 60쪽.
8. S. Monson, *To the Rescue*, 1쪽.
9. 토마스 에스 몬슨, “지금이 바로 그때라”,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69쪽; *Ensign*, 2001년 11월호, 60쪽.
10. Richard G. Scott, *To the Rescue*, 162쪽.
11. *To the Rescue*, 521쪽 참조.
12. 토마스 에스 몬슨, “본이 되어” *Ensign*, 1996년 11월호, 45쪽.
13. Thomas S. Monson, Salt Lake City South Stake Conference Broadcast, 2009년 10월 18일, 미출판.
14. 토마스 에스 몬슨, “주님의 길”, *리아호나*, 2003년 1월호, 4쪽.



원작부터: 사진 크레디그 데이비드 레슬리, 몬슨 매튜 리이어, 케리 이반트

2010년 11월 21일 아프리카 지역 스테이크
및 지방부 대회에서 전한 말씀에서 발췌.

복음 문화

아 프리카의 여왕[The African Queen]이라는 유명한 영화에는 제1차 세계 대전 동안 동아프리카에서 자행된 폭력을 피해 비교적 안전한 빅토리아 호수 지역을 찾아 떠나는 두 피난민이 나옵니다. 그들이 탄 배, 아프리카의 여왕 호는 여러 난관에 부딪히지만 그때마다 무사히 헤쳐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늪에 빠지고 맙니다. 물살이 흐르는 방향도 모르는데다 높은 지대에 둘러싸여 방향 감각을 잃어 버린 이 두 피난민은 낙담하게 됩니다. 기력과 신앙이 한계에 달한 이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고조되어 가는 그 극적인 순간에 카메라 너머로 저 먼 곳의 경치가 우리 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들이 표류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의 시야 너머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지점에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온 빅토리아 호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필멸의 삶에서 우리의 여정과 영원한 의미에서의 우리의 목적지를 설명해 줍니다. 아프리카의 여왕 호에 댕긴 피난민들처럼 우리도 악과 재난을 피해 도망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때로는 발전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디로 가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처한 상황 너머 멀리를 바라보고

사진상화: 리저드 엠 뮌너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이 복음 문화는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 나옵니다. 이 교회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회원들을 돕기 위해 이 복음 문화에 반대되는 어떠한 개인 및 가족 전통 또는 관습을 중단하라고 가르칩니다.





성신의 은사는
필멸의 삶이라는
힘든 여정 속에서도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격려하려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선물입니다.

영생으로 향하는 여정 중 현재 위치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신에 의지하십시오

다행히도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어려운 상황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에도 구주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방향 탐지기이자 길잡이를 주셨습니다. 바로 성신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이 신성한 은사를 사용하고 또 이것에 의지해야 하며, 그것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에 교회 회장으로 봉사한 월포드 우드럽(1807~1898) 회장님은 성신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죄 사함을 위해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은]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하는 …… 일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 계시를 받을 권리, 하나님의 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¹

우드럽 회장님은 “이 영[이] 신앙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을 매일 알려 [준다.]”²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필멸의 삶이라는 힘든 여정 속에서도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격려하려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선물입니다.

이 소중한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드럽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신은 깨끗하지 않은 장막에는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종교의 모든 권능과 은사를 누리고자 한다면, 순결해야 합니다. 연약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죄로 인해 죄책감을 느낀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³

주께서는 우리에게 매주 성찬식에 참석하여 성찬을 들라고 명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59:9~12 참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며 늘 그분을 기억하고 계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새롭게 하며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항상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교리와 성약 20:77) 하시겠다는 귀중한 약속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장애물과 실망을 넘어 하늘 집으로 인도되는 방법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도덕, 외설물, 폭력, 마약 및 현대 사회를 괴롭히는 수많은 나쁜 것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 즉 책임은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야고보서 1:27) 않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우리 모두를 둘러싸고 있는, 폭풍이 몰아치는 죄의 바다를 안전하게 통과하여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도록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⁴

참으로 우리에게 영의 인도가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을 동반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부지런히 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계명을 지키고, 기도를 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매주 성장을 취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뚜렷하게 구분되는 생활 방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에게는 복음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생활 방식이며, 모든 회원들에게 일반적인 일련의 가치관이고 기대치이자 관습입니다. 이 복음 문화는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계명,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각자 살아가는 과정에서 지침이 됩니다. 가족 선언문에 언급된 원리들은 이 복음 문화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⁵

이 교회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회원들을 돕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가르침과 이 복음 문화에 반대되는 어떠한 개인 및 가족 전통 또는 관습을 중단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경고를 주의 깊게 따르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철학[에] …… 사로잡[히려는]”

안 되며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골로새서 2:8)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릇된 전통과 문화를 단념하는 것에 관한 한 우리 젊은 세대들의 융통성과 진취성을 칭찬하며, 한편으로는 기성세대 회원들에게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전통과 문화 관습 및 부족 관습을 던져 버릴 것을 간청합니다. 우리는 모든 회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뿌리를 둔 관습과 전통으로, 즉 복음 문화라는 더 높은 지대로 올라 설 것을 요청합니다.

대다수 아프리카 전통은 복음 문화와 일치하며 우리 회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프리카의 강한 가족 문화는 가족 가치관이 와해되어 가고 있는 여러 서구 국가들보다 우수합니다. 아프리카의 가족들 사이에 가득한 사랑과 충실함은 복음 문화에 반드시 필요한 전통입니다. 이 전통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 데 여러분의 모범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숙함 또한 아프리카에 있는 강점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아프리카 청소년들만큼 정숙하라고 간청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몇몇 문화 전통은 복음 문화와 복음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부정적입니다. 이런 것들 중 몇 가지는 출생, 결혼, 사망 시에 이루어지는 가족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아프리카 남편들은



우리는 젊은 세대들의 융통성과 진취성을 칭찬하며, 한편으로는 기성세대 회원들에게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전통과 문화 관습 및 부족 관습을 던져 버리라고 간청합니다.

아내가 대부분의 가정 일을 하는 동안 쉬거나, 아내와 자녀는 그저 남편의 종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가족 관계를 방해하고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이 지상에서 반드시 이룩해야 하는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경전을 공부해 보면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는 모범을 모두에게 보여 주었음을 알게 됩니다.(모세서 5:1, 4, 10~12, 16, 27 참조) 이것은 우리가 가족 생활에서 따라야 할 본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사랑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정적인 전통 문화는 신부 값이라 하는 로볼라(lobola) 풍습입니다. 이것은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따라 계명을 지키는 데 심각한 방해가 됩니다. 젊은 귀환 선교사가 수년 동안 모아야 할 만큼의 큰 돈을 장인에게 지불하고 신부를 사와야 한다면, 중년이 될 때까지 돈을 모으거나 결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적 관계를 금하고 있고 결혼 생활과 자녀 양육을 위해 마련된 복음 계획과 상충됩니다. 신권 지도자들은 부모들에게 이런 관습을 중단하라고 가르쳐야 하며, 젊은이들은 신부 값을 지불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거룩한 성전에서 결혼하는 주님의

우리가 결혼에 관한 주님의 계명과 그분 지도자들의 권고를 따를 때, 우리는 그분께 다른 모든 축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에 속한
다수 국민이
충실하게 십일조를
낼 때 그들은
나라 전체에 하늘
축복을 부어
주시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복음 문화와 대립될 수 있는 다른 문화 관습과 전통으로는 결혼식과 장례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결혼식과 장례식을 치르느라 심한 빚을 지게 되는 계획은 세우지 말도록 부탁드립니다. 장거리 여행과 호화로운 잔치는 피하십시오. 과도한 부채는 십일조를 내고, 성전에 참석하고, 자녀를 선교사로 내보낼 능력을 약화시키거나 방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하게 될 교회 활동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키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결혼의 중요성

우리는 사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말하자면 저는 아프리카와 그 밖의 지역에서 부족 간, 국가 간에 잦은 전투가 벌어져 계획적으로 인명을 앗아가는 일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절도나 사기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다른 큰 악은 “간음하지 말라”(출애굽기 20:14)라는 계명과 그와 관련된 모든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 이런 계명들을 주셨으며, 중요한 출산 능력이 결혼 관계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결혼 밖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일은 죄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시대에 삽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새로 태어나는 아기 중 40퍼센트를 미혼모들이 출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은 채 함께 삽니다. 이런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결혼을 통해 서로에게 헌신하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첫 부모를 위해 제정하신 것입니다.⁶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만, 우리는 아프리카와 그 밖의 국가들을 향해 묻습니다. 과연 어떤 종류의 결혼을 말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승인되는 정식 결혼이 있으며, 별다른

예식도 없이 시작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다양한 관습적 또는 부족 결혼이 있습니다. 주님의 표준은 인간의 법률이 보장하는 만큼이나 영속적인 결혼이며, 그 표준은 성전에서 인봉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도록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내가 외국이나 기타 먼 지역에 있는 직장에 종사하는 등과 같은 이유로 장기간 떨어져 지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를 재차 단언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 그렇게 떨어져 지낼 때 심각한 죄가 뒤따릅니다. 떨어져 지내는 생활은 영원한 성약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비탄을 낳고 축복을 잃는 원인이 됩니다. 주님은 현대 계시에서 “너는 네 온 마음을 다하여 네 아내를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지니라.”(교리와 성약 42:22)라고 명하셨습니다. 결혼에 관한 주님의 계명과 지도자들의 권고를 따를 때, 우리는 그분께 다른 모든 축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십일조에 따르는 축복

십일조는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구주께서 말라기를 통해 거듭 확인하신 말씀은 십일조를 창고에 들이는 사람에게 주님이 “하늘 문을 열고 [그들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것이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된 축복은 현세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십일조를 내는 이들에게 “메뚜기를 금[할]” 것이며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할]”(말라기 3:10~12; 또한 제3니파이 24:10~12 참조)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약속이 우리가 거주하는 나라에도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십일조와 헌물을 내지 않았을 때 그분은 “온 나라”를 저주하셨습니다.(말라기 3:9) 마찬가지로 한 나라에 속한 다수 국민이 충실하게 십일조를 낼 때 그들은 나라 전체에 하늘 축복을 부어주시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교회의 중심에 있는 스테이크들이 강하므로 우리는 회원들에게 고국에 남아서 교회를 세우라고 권고합니다. 우리는 세계 곳곳에 성전을 지어 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고]”(갈라디아서 5:9; 또한 마태복음 13:33 참조)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잠언 14:34)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충실하게 십일조를 낸다면 절실하게 필요한 축복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십일조를 내는 사람은 현세적 축복뿐만 아니라 특별한 영적 축복도 받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시절에 미망인인 제 어머니는 얼마 안 되는 학교 교사 봉급으로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셨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 바라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생활한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어머니에게 봉급에서 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십일조로 내는지 여쭙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해 주신 설명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앨런, 십일조를 내지 않고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가난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단다. 주님은 너희 아버지를 데려가시고 나 혼자서 너희를 키우는 쪽을 선택하셨지. 엄마는 주님의 축복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정직하게 십일조를 내면 그런 축복을 받게 되지. 십일조를 내게 되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생활하려면 그런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단다.”

평생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저는 선량하신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내는 그분의 자녀들을 풍성하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십시오

우리는 아프리카와 그 밖의 나라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지도자와 회원들 중에 충실한 3~4대 후기 성도 가족들이 있어야 합니다. 충실한 후기 성도들이 타국으로 이주하면서 고국에 있는 교회가 약해집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회원들이 발전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으나, 교회가 한때 그런 이민을 장려한 이래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래 전에 후기 성도들은 미국에 있는 시온에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지으라는 권고를 받았습니. 이제 교회의 중심에 있는 스테이크들이 강해졌으므로, 우리는 회원들에게 고국에 남아서 교회를 세우라고 권고합니다. 우리는 세계 곳곳에 성전을 지어 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직접, 그리고 그분의 종들을 통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즉 주님의 방법으로 행한다는 이유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셨습니다.(요한복음 15:19 참조)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 방법대로 행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앞서 나아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쪽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यो,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यो,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교리와 성약 84:88)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 서로의 관계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는 배우자, 자녀와 맺는 관계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성스러운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킬 경우 영원한 관계가 됩니다.

이 지상에 사는 모든 남성과 여성은 피부색이나 국적에 관계 없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영의 형제이자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형제애와 자매애, 그리고 사심 없는 도움이 부족, 국가, 신조, 피부색 등과 같은 모든 경계선을 넘을 수 있다면 세상은

참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모든 의견이나 행동의 차이점을 지워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각자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증오나 탄압보다는 협동에 초점을 맞추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저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위대한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자녀가 지상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서서히 깨달을 수 있는 매우 훌륭한 개념입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저는 자라나는 세대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소망을 알 수 있도록,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상의 모든 자녀가 가장 좋은 축복인 영생을 받는

데 필요한 일을 행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모든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모범을 보여 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알기에, 그분이 주실 가장 좋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 점을 간증하며, 하늘 아버지의 축복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럼(2004), 49쪽.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럼, 51쪽.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럼, 54쪽.
4. 토마스 에스 몬슨, "천국의 가정, 영원한 가족", 리야호나, 2006년 6월호, 67~68쪽.
5.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야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참조.
6. 리야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참조.



형제애와 자매애 그리고 사심 없는 도움이 부족, 국가, 신조, 피부색 등과 같은 모든 경계선을 넘을 수 있다면 세상은 참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방문 교육 보살핌의 힘을 이해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는 더 높은 길을 걷고 마음을 다해 그분의 자녀들을 보살핌으로써 제자 정신을 실천하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 리스도께서는 지상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을 보살피셨습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본 바, 나의 하는 일 그것을 너희도 하여야 할 것임이니라.”(제3니파이 27:21) 신약전서에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보살피신 실화들이 가득합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분이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주셨으며, 아이로에게 그의 딸을, 슬퍼하는 누이들에게 나사로를 돌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와중에도 구주는 “아마도 그 당시 즈음에는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미망인이 되셨을 그의 어머니를 위한 걱정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¹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보살피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줄리 비 백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상호부조회와 [방문 교육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연습을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가 배우기를 바라시는 것을 배우고 하기를 바라시는 일을 하며 되기를 바라시는 사람이 됩니다.”²

보살핌의 힘을 이해하고

“여러 해에 걸쳐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지도자들은 한 번에 한 걸음씩 배웠으며 사람들을 보살피는 역량을 키워 나갔습니다.”라고 백 자매님은 말씀했습니다. “자매들이 자매들을 방문하고, 자매들에게 공과를 가르치고, 자매들의 집에 들러서 쪽지를 남기는 일에 더 집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매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 보살피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모세 시대 사람들이 수많은 규칙들을 지키는 데 온 신경을 썼던 것처럼 상호부조회 자매들도 서로를 강화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성문화된 많은 규칙과 불문 규칙들을 시행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자매들과 그 가족의 생활에서 구제와 구조가 무척이나 필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더 높은 길을 따르고 그분의 자녀들을 진정으로 보살피서 그리스도의 제자 정신을 구현하기를 바라십니다. 지도자들은 이런 중요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자매들과 그 가족의 영적, 현세적 복지에 관해, 그리고 봉사에 관해 보고하도록 요청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방문 교사들은 ‘자매 각자를 진정으로 알고 사랑하며, 그 자매들이 신앙을 강화하도록 돕고, 봉사를 베푸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³

상호부조회 역사를 다룬 *내 왕국에 속한 딸들과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더 높은 길을 따르고 제자 정신을 실천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 방문하는 자매들과 그 가족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 자매들의 필요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영감을 구합니다.
- 자매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위로하고 강화합니다.
- 방문, 전화, 편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및 간단하며 친절 한 행위를 통해 자매들과 자주 접촉합니다.
- 교회에서 자매들에게 인사합니다.
- 자매들이 병을 앓거나 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줍니다.
- 경전과 방문 교육 메시지를 통해 자매들에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 좋은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매들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 자매들의 영적 및 세상적 복지에 대해 상호부조회 지도자에게 보고합니다.⁴

보살피는 일에 집중하며

우리는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방문 교육을 중요한 책임으로 여길 때 우리가 방문을 하는 자매들을 더욱 잘 보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1. 우리는 자매들이 영을 초대하고 신앙과 의로움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일들을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2. 우리는 방문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보살피고, 그들이 자신의 가정과 가족을 강화하도록 돕습니다.
3. 우리는 자매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손을 내밅니다.

다음 이야기에는 보살핌의 힘을 이해하는 방문 교사인 마리아와 그레첸의 모범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일화에서 우리는 방문 교사들이 이제 따로, 또는 함께 방문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함께 방문하여 메시지를 전하든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메시지를 전하든 간에 “보살피는” 의무를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탁받지 않고도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자매들의 영적, 또는 현세적 필요 사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시를 구하고



기적적인 일을 행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노력하고 우리의 책임을 수행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구할 때 우리는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91쪽.

받으며 그에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레이첼은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으며 임신 기간 대부분을 침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방문 교사들은 레이첼을 도울 좋은 방법을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가까이 사는 마리아는 일하러 가기 전 거의 매일

레이첼의 집에 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루는 화장실 일부를 청소하고 그 다음날은 나머지를 청소했고, 또 하루는 거실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그 다음날은 레이첼을 위해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빨래를 하거나 먼지를 닦거나 그 밖에 레이첼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면서 그녀를 계속 보살폈습니다.

그레첸은 레이첼에게 자주 전화해서 기운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때로는 수다를 떨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고, 때로는 마리아와 함께 방문해 머리맡에서 간증을 나누거나 경전을 읽고 방문 교육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마리아와 그레첸은 상호부조회 회장단과 함께 레이첼 가족에게 필요한 다른 보살핌을 준비했습니다.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감독 및 워드 평의회와 의논하여 가정 복음 교사와 그 외 사람들이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매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워 가고 영적인 경험을 나누면서 보살피는 일은 더욱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방문 교사로서 우리는 이와 같은 보살핌의 모범과 원리를 따르고, 또한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보살피고

“우리는 구주를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로서 그분이 이곳에 계셨다면 하셨을 일을 행하며



우리의 역량을 키웁니다.”라고 백 자매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목록에 따라 할 일을 해치우는 것보다는 자매들을 보살피는 데 더 집중하려 노력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봉사는 완벽한 통계 자료보다는 우리가 지닌 사랑의 깊이로 측정됩니다.”⁵

방문 교사로서 우리는 우리가 방문하는 자매들이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우리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 방문 교사들은 제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그분들이 저와 제 가족에 대해 깊이 마음 써 주신다는 것과, 제게 문제가 생기면 도와 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방문 교사로서 좀 더 높은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의 기적적인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신앙과 의로움을 키우며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상호부조회의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

주

1.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3쪽.
2. 내 왕국에 속한 딸들, 7쪽.
3. 줄리 비 백, “내 손녀(손자)들이 상호부조회에 대해 이해했으면 하는 것들”, *리아호나*, 2011년 11월, 112쪽.
4. 내 왕국에 속한 딸들, 123쪽 참조.
5.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112~113쪽.

방문 교육은 어떻게 강화되었는가?

다 음은 방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 사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저희는 상호부조회 지도자들과 방문 교사들에게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9장을 읽으면서 구체적인 변경 사항을 살펴볼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 7장을 읽으며 시야와 통찰을 넓히고, 보살핌의 힘과 방문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도록 권고합니다.(이 두 책은 LDS.org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문 교사를 지명하며	
1. 상호부조회 회장 한 사람이 아닌, 상호부조회 회장단 전원이 방문 교육을 책임진다.	지침서 제2권, 9.2.2 참조
2. 상호부조회 지도자는 자매에게 방문 교육 임무를 줄 때, 방문 교육은 완수해야 할 중요한 영적 책임이라는 점을 그 자매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지침서 제2권, 9.5; 9.5.1 참조
3.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방문하는 자매들에게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해 방문 교사들에게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그 달의 첫째 일요일 또는 다른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할 수 있다.	지침서 제2권, 9.5 참조

다른 이들과 협의하고	
1.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정기적으로 방문 교사들을 만나 도움이 필요한 자매들의 영적 및 현세적 복지에 대해 논의하고 그들을 도울 계획을 세운다. 방문 교사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매들을 위한 단기 및 장기 지원을 협의하는 상호부조회 회장단을 돕는다.	지침서 제2권, 9.5; 9.5.1; 9.5.4 참조
2.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정기적으로 함께 만나 도움이 필요한 자매들의 영적 및 현세적 복지에 대해 협의한다.	지침서 제2권, 9.3.2; 9.5.4 참조
3. 와드 혹은 지부 평의회에서 상호부조회 회장은 와드 혹은 지부 지도자들이 영적 및 현세적 필요 사항이 있는 자매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방문 교육 보고서 내용 중 적절한 정보를 공유한다.	지침서 제2권, 4.5.1; 5.1.2; 6.2.2 참조
4. 감독이나 지부 회장은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 임무를 협의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상호부조회 회장을 와드 혹은 지부 신권 집행 위원회 모임에 참석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지침서 제2권, 9.3.1 참조
5. 상호부조회 회장단과 청년 독신 대표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방문 교육 임무가 청년 독신 성인의 필요 사항을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침서 제2권, 9.7.2; 16.3.3 참조

방문 교육 조직과 관리

<p>1. 감독 혹은 지부 회장과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방문 교육 조직을 결정하기 위해 지역의 필요 사항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검토하고 함께 협의한다.(자매들은 개별적으로 필요 사항을 보살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방문 교육을 목적으로 그룹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감독 혹은 지부 회장은 각 임무를 승인한다.</p>	<p>지침서 제2권, 9.5.2 참조</p>
<p>2. 가능한 곳에서는 회장단이 자매들을 두 명씩 짝지어 동반자조로 지명한다. 지침서 제2권에는 현지 필요 사항에 맞춘 몇 가지 선택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회장단은 감독 혹은 지부 회장과 다음 선택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p> <p>ㄱ.어떤 가정에 일시적으로 가정 복음 교사만, 또는 방문 교사만 배정한다. 혹은 지도자들은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가 매달 번갈아 가면서 방문하게 할 수도 있다.(지침서 제2권, 9.5.3 참조)</p> <p>ㄴ.선교부 회장에게서 승인을 받아, 전임 자매 선교사에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방문 교육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지침서 제2권, 9.5.3 참조)</p>	<p>지침서 제2권, 9.5.2; 9.5.3 참조</p>
<p>3. 방문 교육은 단순히 매달 하는 방문이 아니라 보살핌이다. 방문 교사들은 각 자매의 필요 사항에 맞게 돌보고 강화시키기 위해 방문이나 전화, 이메일, 편지, 다른 방법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접촉한다.</p> <p>지도자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자매들이 우선적으로 보살핌을 받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청년회에서 상호부조회로 옮겨오는 자매, 독신 자매, 새로운 와드 회원, 최근 개종자, 새로 결혼한 자매, 저활동 회원, 특별한 필요 사항이 있는 자매.(지침서 제2권, 9.5.2 참조)</p>	<p>지침서 제2권, 9.5.1 참조</p>

방문 교육 보고

<p>1. 방문 교사들은 특별한 필요 사항과 수행한 봉사, 즉 도움을 준 내용에 관해 보고한다. 단순히 방문 숫자만을 세는 것이 아니라 돌보아 준 숫자를 센다.</p>	<p>지침서 제2권, 9.5.4 참조</p>
<p>2. 상호부조회 회장은 감독 혹은 지부 회장에게 월간 방문 교육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는 접촉하지 못한 자매들의 명단과 방문 교사들이 행한 봉사, 그리고 특별히 필요한 도움을 포함시킨다.</p>	<p>지침서 제2권, 9.5.4 참조</p>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영향을 미치다

제 일회장단은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 서문에서 독자들에게 “이 책을 공부[하여] 그 안에 담긴 변하지 않는 진리와 영감을 불어넣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바[란다]”¹는 격려 말씀을 전한다. 다음은 이 영감 어린 책을 읽고 영향을 받은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이다.

“이 책에는 정말로 영이 있어요. 제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영을 실제로 느꼈거든요.”—셸리 버태그놀리

“내 왕국에 속한 딸들을 읽고서 더욱 충실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고 성약을 지키는 데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아론 웨스트

“내 왕국에 속한 딸들에 나오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실제로 그분들을 보는 듯했고 그들의 신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그분들은 아셨어요. 그게 바로 상호부조회의 목적인데, 그것은 결혼 여부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요. 물론 저한테도 적용되죠.”—카트리나 캐넌

“저는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에서 살았는데, 제가 어디에서 살든지 저는 훌륭한 자매 단체의 일원이에요. 그들은 강하고 충실한 여성들이고, 그러한 미덕은 유산과 같은 것이죠.”—마르타 브라보

“저는 내 왕국에 속한 딸들에서 그래픽디자인 작업을 맡았는데,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모임을 할 때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줄리 비 벡 자매님이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계시와 지도에 따라 이 책이 나오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셨어요. 그 첫날부터 계시로 모든 인도를 받았습시다. 우리 팀원 중 한 사람이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 줄 때마다 우리는 영의 감동을 받아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고, 편집자, 도안가, 삽화가, 기술 제작자, 인쇄 담당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태드 피터슨

“저는 제가 더 훌륭한 무언가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상호부조회에서 힘을 받을 때 저 또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자넷 앤드루스

“이 역사는 전 세계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딸로서의 여성의 가치와 그분의 왕국에서 여성들이 맡은 중요한 역할을 깨닫게 해 주는 매우 훌륭한 자료입니다.”—수잔 로프그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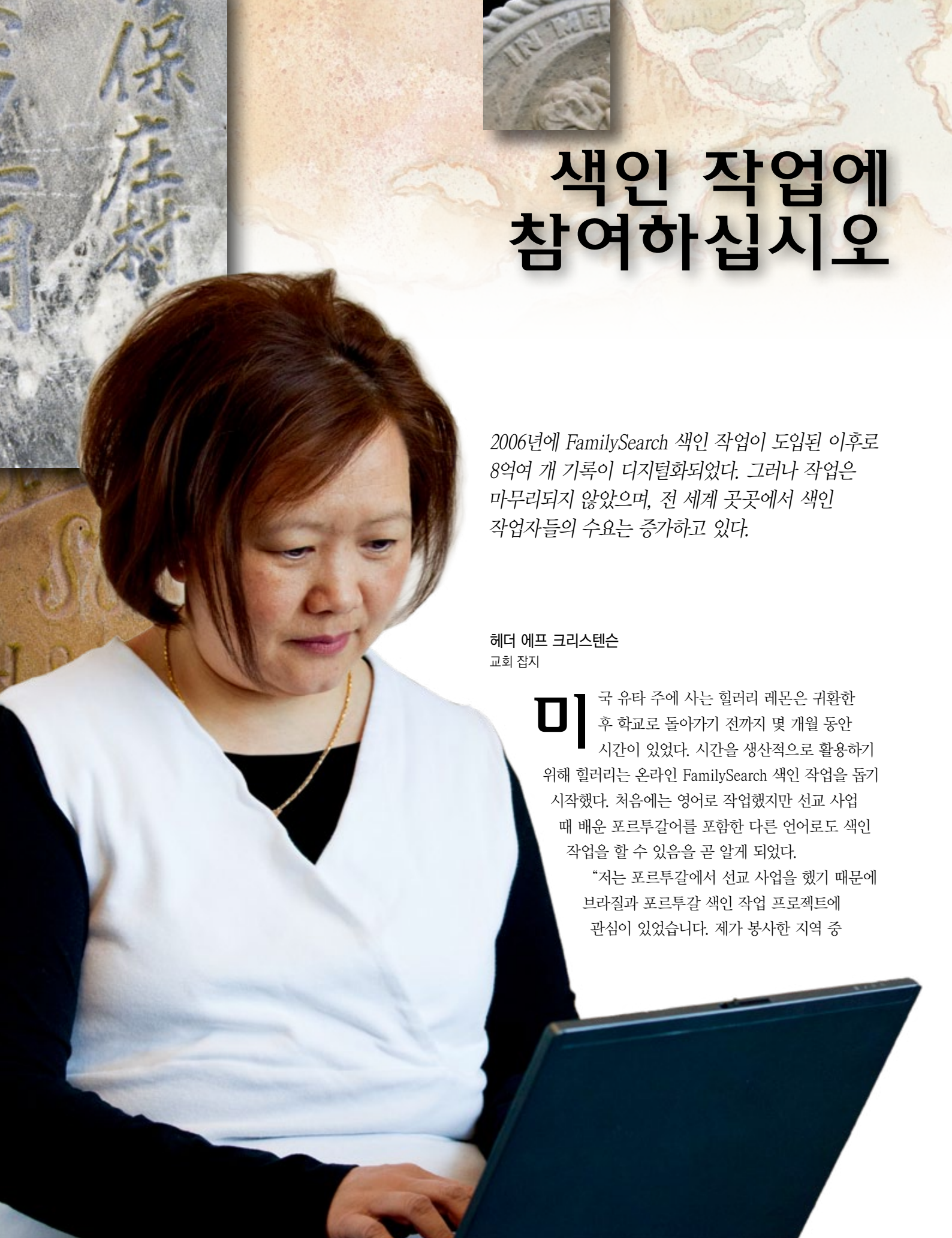
“저는 제가 다른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는 각자 처한 상황도 다르고 강점과 약점도 서로 다르지만 그런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니콜 에릭슨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는 저는 내 왕국에 속한 딸들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시다. 저는 상호부조회와 신권회가 함께 협력할 때 엄청난 힘이 나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마크 스테이플즈 ■

주

1.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ix.





색인 작업에 참여하십시오

2006년에 FamilySearch 색인 작업이 도입된 이후로 8억여 개 기록이 디지털화되었다. 그러나 작업은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전 세계 곳곳에서 색인 작업자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헤더 에프 크리스텐슨
교회 잡지

미 국 유타 주에 사는 힐러리 레몬은 귀환한 후 학교로 돌아가기 전까지 몇 개월 동안 시간이 있었다.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힐러리는 온라인 FamilySearch 색인 작업을 돕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영어로 작업했지만 선교 사업 때 배운 포르투갈어를 포함한 다른 언어로도 색인 작업을 할 수 있음을 곧 알게 되었다.

“저는 포르투갈에서 선교 사업을 했기 때문에 브라질과 포르투갈 색인 작업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봉사한 지역 중



손쉬운 FamilySearch 사용법

영 국 출리 스테이크
 청소년 중 한 명인
 15세 청년 매켄지 자매는
 다른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스테이크 회장단으로부터
 권유를 받고서 200개 이름을
 색인 작업했다. “이백이
 곧 이천이 되었어요!”
 매켄지 자매가 덧붙였다.
 “색인 작업은 정말로
 쉽고 빠르죠. 프롬프트가
 나타나서 이름과 지명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저는 제 색인 작업 지식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기 계정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서
 얼마나 간단하고 재미있는지
 시범을 보였죠.”

하나인 포르투갈 세투발의 한 프로젝트를 봤을 때 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라고 힐러리는 말한다.

FamilySearch는 비영어권 기록의 색인 작업 작업을 위한 도움을 더욱더 필요로 하는데, 힐러리는 그러한 도움을 주는 자원 봉사자 중 한 명이다. 작업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다른 자원 봉사자들 127,000명과 마찬가지로 힐러리는 고인들의 이름과 그들 생애에 있었던 사건들을 발췌하여, 회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 성전에서 조상의 의식을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

색인 작업이란 무엇인가

FamilySearch 색인 작업이란 인구 조사, 인구 동태 통계, 공증, 교회 기록과 같은 물리적인 기록을 디지털화한 자료를 읽고 그 안에 담긴 기록을 검색 가능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을 통해 색인 작업 자원 봉사자들은 교회 회원들과 그 외 가족 역사 조사자들이 인터넷에서 조상의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한다.

색인 작업은 가족 역사 사업을 좀 더 단순하고 쉽게 하도록 도와준다. 헝가리에 사는 색인 작업자 조세프 사뱃카이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친척을 찾기 위해 마이크로필름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찾고자 하는 가족을

찾아내면 관련된 이름 또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필름을 몇 번이고 되감아 보기도 했습니다.”

현재 FamilySearch는 계속해서 정부와 세계 곳곳에 있는 기록 보관소로부터 역사 기록을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기록을 촬영하여 조사자들이 그 필름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FamilySearch 직원들은 필름을 색인 작업 프로그램 안에 스캔해 둔다. 그러면 자원 봉사자들은 그 이미지를 컴퓨터로 불러와 보이는 대로 정보를 입력한다. 정보는 이러한 방식으로 디지털화되며 조사자들은 집에서 편리하게 FamilySearch.org 검색 기능을 통해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색인 작업은 얼마나 발전했는가?

2006년에 FamilySearch 색인 작업이 도입된 이후 자원 봉사자들이 약 8억 개에 달하는 기록을 다른 형태로 바꿈으로써 색인 작업 사업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작업이 완료되려면 아직 멀었다. 촬영된 기록을 보관하고 보호하는 솔트레이크시티 그래니트 마운틴 기록 보관소에는 약 150억 개 기록이 보관되어 있으며 추가 기록이 끊임없이 더해지고 있다. 이 기록들에는 100개국어 넘는 수십 억 인구에 대한 정보가 170개 이상의 언어로 담겨 있다.





가족 역사를 위한 시간 내기

만능은 사람들은 가족 역사 작업을 할 시간을 내기 어려워하는 듯하다. 미국 유타 주에 사는 조니 수 설리티 자매는 색인 작업을 일정에 넣기 위한 방법을 찾아냈다. “저는 색인 작업을 좋아해요.”라고 설리티 자매는 말한다. “남편과 제가 자동차 여행을 할 때면 저는 기록을 제 노트북에 다운받는데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는 오프라인이 되지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저는 다시 온라인에 접속해 완성된 기록을 올리고 집에 갈 때를 대비해 추가 기록을 다운받아요. 저는 색인 작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을 활용하는 데 자동차 여행이 제겐 좋은 방법이에요.”

폴란드에서 온 봉사 선교사이자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색인 작업자 로버트 매그누스키 형제는 비영어권 자원 봉사자들의 수요가 얼마나 큰지를 몸소 체험 중이다. “폴란드는 1772년부터 1918년까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록들이 러시아어, 독일어, 라틴어, 폴란드어까지 4개 언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대개 폴란드 색인 작업자들이 폴란드어를 하기 때문에 우선 폴란드어로 작성된 기록들의 색인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므로 현재 러시아어, 독일어, 라틴어로 된 기록에 대한 작업도 필요한 상태다. 여러 언어로 작업이 가능한 전 세계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세계 곳곳의 가족 역사 조사자들은 그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어떤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그들의 조상을 찾을 수 있다.

기록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색인 작업 프로그램은 온라인에서 11개 언어, 즉 네덜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로 제공된다. 이 중 어떤 언어라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모국어이든, 선교 사업, 학교 교육, 또는 그 외 다른 교육을 통해 배운 것이든 그것을 등록하여 기록에

대한 색인 작업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색인 작업 자원 봉사자가 되는 길은 쉽고 빠르다. indexing.familysearch.org에 나온 지시 사항에 따라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다운받는다. 그런 후 계정을 만들고 작업할 기록을 일정량 택한다. 기록들은 20~50개 이름들로 된 작은 분량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자원 봉사자들은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작업에 할애할 수 있다. 각 분량마다 걸리는 작업은 약 30분이지만, 프로그램이 완료된 작업을 저장해 두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었다가 나중에 다시 할 수 있다. 일주일 내로 분량 하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기록은 자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된다.

전 세계 곳곳에서 온 기록들은 FamilySearch가 그 나라에서 온 기록을 구하는 즉시 색인 작업을 위해 제공된다. 사밧카이 형제는 헝가리 출신이지만 헝가리에서 온 기록이 제공되기 전까지는 영어와 아프리카언어로 된 기록에 대한 색인 작업 작업을 했다. “2001년 초에 헝가리에서 온 첫 번째 기록들에 대한 공지가 있었을 때 저는 무척 기뻐했습니다.”라고 사밧카이 형제는 말한다. “나이를 막론하고 여러 헝가리 회원들은 당시 등록한 후 색인 작업 마니아가 되었습니다.” 사밧카이 형제의 열정은 이 기록들이 다른 형태로 옮겨지면서 자신의 조상을 찾게 될 것이라는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면서 우리는 가족들의 이름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을 아끼고 우리 조상들이 구원의 의식을 더 빨리 받도록 해 줄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컴퓨터를 구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일이 어려워 색인 작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난관에 부딪힌다. 멕시코시티 제이라헤플라 스테이크 지도자들 또한 청소년들을 색인 작업에 참여시키려 했을 때 그 같은 상황에 직면했다. 집에 컴퓨터가 없는 청소년들도 있었기 때문에 스테이크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이 방과 후 지역 내 한 학교의 컴퓨터실을 예약하여 사용하게 했다.

그런 후 청소년들은 1930년 이후의 멕시코 인구 조사 기록에 대한 색인 작업을 시작했다. “청소년들은 서류를 보면서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언젠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모세서 1:39) 주님의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서 말이지요.”라고 다리오 자파타 비바스 감독은 말한다.

필요한 기술을 구하고자 하는 스테이크 지도자들의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청소년들과 스테이크 회원들은 한 달 만에 300,000개 기록 이상을 색인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제이라헤플라 스테이크 청소년들이 보여준 바와 같이 개인 컴퓨터가 없어도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색인 작업 프로그램은 인터넷 접속이 되는 컴퓨터라면 다른 회원의 집, 가족 역사 센터, 교회, 그리고 허가를 받은 학교 또는 도서관, 그 어디에서도 실행 가능하다.

색인 작업의 축복

힐러리 레몬 자매가 작업한 포르투갈어 서류는 2세기 전에 작성된 침례 기록이었다. 종이는 바싹고 정성 들여 쓴 글씨는 읽기 어려웠으나 레몬 자매는 종이 위 이름들이



성전에서 그들의 의식이 수행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내하며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색인 작업을 하면서 저는 언젠가 포르투갈의 한 후기 성도가 제가 색인 작업을 한 그 침례 기록을 열어 그의 조상을 찾게 될 것이라는 감미롭고도 분명한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레몬 자매는 말한다. “이제 포르투갈 리스본에 성전이 세워질 계획이므로 저는 언젠가 그곳 회원들이 현재 FamilySearch 색인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통해 그들의 조상을 찾게 될 것임을 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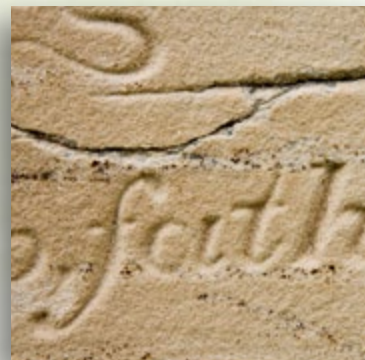
레몬 자매와 같은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더 많은 기록이 보존될 것이며 세상을 떠난 이들이 복음의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indexing.familysearch.org에 접속하거나 와드 또는 지부 가족 역사 전문가에게 문의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색인 작업

색인 작업은 학생, 주부, 사업가, 퇴직자를 포함하여 인생의 모든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걸맞은 작업이다. 데이비드 블라이드와 버니스 블라이드 부부는 일곱 차례에 걸쳐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현재 뉴질랜드에 살면서 계속 봉사하는 중이다. “바쁘고 활발하게 지내기 위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항상 많아요.”라고 블라이드 자매는 말한다. “색인 작업은 우리가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줍니다.” 2009년 이후로 블라이드 자매는 180,000개 이상의 이름에 대한 색인 작업을 했다. “이 훌륭한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즐거워요. 이 사업은 우리 조상을 찾고 그들에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러시아어를 하십니까?

내 남편 다니엘과 나는 무척 바빴지만 2009년이 다 가기 전에 영국 프레스턴 성전에 한 번 더 가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사는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성전까지는 버스를 한 번 갈아타고 거의 여섯 시간을 가야 한다. 출발하는 날 아침에 흐리고 비가 왔지만 우리는 성전에 갈 수 있어 기뻐했다. 환승역에서 두 번째 버스를 기다린 지 한 시간이 되었을 때 비가 오고 추워지기 시작했다.

프레스턴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즉시 성전으로 가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곧 성전에 있게 되리라는 기대에 마음은 따뜻했다. 프레스턴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즉시 성전으로 가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허기도 지고 흠뻑 젖은 상태였지만 성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성전에 들어서자 한 친절한 성전 봉사자가 성전 추천서를 확인했다. 그분은 안경을 벗고

추천서에 적힌 우리 이름을 다시 살폈다. “러시아에서 오셨습니까?” 놀란 목소리였다.

그 반응이 의아스러웠지만 우리는 “네.” 하고 대답했다.

“그럼 러시아어를 하십니까?”라고 그분이 되물었다.

“그럼요.”

그러자 그분은 수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다.

성전 회장님이 곧 우리에게 오셨다. 안경 너머로 눈물이 고인 그분의 눈이 보였다. “두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십니다!” 회장님은 활짝 웃으며 우리를 안내하셨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갔고, 이내 혼란에 빠진 채 성전 봉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젊은 선교사를 발견하게 되었다.

아르메니아 출신인 그 선교사는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이었다. 영국 런던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 영어를 배우지 않은 상태였다. 성전 근처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는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날 그 선교사는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성전 봉사자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었다. 흠뻑 젖은 한 러시아인 부부가 걸어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다니일은 곧바로 자원하여 그 젊은 선교사를 도왔다. 선교사는 무척 기뻐했고, 우리가 도착했을 때 특별한 영을 느꼈다고 나중에 말했다.

나는 남편과 내가 그날 바쁜 일정과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가기로 함으로써, 영국에 있지만 러시아어로 말하는 한 하나님의 아들을 도운 일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는 우리 삶에 특별한 빛과 목표를 부여하는 성전 축복에 대해 감사한다. 나는 우리가 성신의 속삭임에 따른다면 그분은 우리를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으로 다시 인도해 줄 것임을 안다. 그날 남편과 나를 주님의 집으로 인도해 준 것처럼 말이다. ■

인나 니키티체바, 스코틀랜드

나는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최 근에 몰몬경을 읽으면서 다음 말씀을 보게 되었다. “어찌하여 너희는 …… 주린 자와, 궁핍한 자와, 벗은 자와,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이 너희 곁을 지나가되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느냐?”(몰몬서 8:39)

보통, 경전을 읽으면서 평안과 위안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슬픈 감정에 휩싸였다. 나는 오래 전부터 내가 그다지 사려 깊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왔다. 내 생활과 부름, 가족에 전념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서로의 짐을 저 가볍게 …… 하며, ……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할]”(모사이야서 18:8~9)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변화되고 싶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몰라서 주님께 도움을 간구했다.

응답은 내가 만성 질환을 앓게 되면서 기대하거나 원하지 않던 방법으로 주어졌다. 그 질환으로 바쁜 일들은 서서히 줄어들었다. 병이 진행되면서 바깥 활동과 부름, 교회 참석을 조금씩 줄여 가야만 했다. 지금은 문 밖 출입도 못하게 되어 알아주는 이도 없고, 외로움을 느낀다.

나는 언젠가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나는 주님께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응답은 내가 기대하거나 원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았다.

다시는 앞 못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고 자신에게 약속한다. 교회에 가자마자 누가 혼자 앉아 있는지, 누가 그날 참석하지 않았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소심한 성격을 극복하고 매주 아프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그저 친구가 필요한 누군가를 방문할 것이다. 단지 일요일이나 교회 활동 동안만이 아니라 매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이며, 또 내 자신이 그런 인정을 받기에 합당하기를 바란다. ■

셸리 프로핏 하웰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나는 봉사하고 싶지 않았다

열한 살 때,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한 지역 대회에서 하워드 더블유 헌터(1907~1995) 회장님은 내 손을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형제님은 언젠가 선교 사업을 하고 훌륭한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보통 청소년이라면 그 말씀을 영원히 소중하게 간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못했다. 그 후 10년 동안 나는 선교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나의 관심은 스포츠와 사교 생활을 잘 하는 것에 쏠려 있었다. 나는 2년이란 시간을 포기하면 그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생각했다. 지부 및 스테이크

회장들과 접견하면서 나는 봉사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계속 생각해 냈다.

스물한 살이 되었을 때에도 선교 사업에 마음이 없었던 나는 미국 아이오와 주에 있는 가족을 방문했다. 내 가족은 그 전 해에 그곳으로 이사했다. 아이오와에 머물면서 나는 그곳 독신 지부 독신들과 함께 네브래스카 윈터쿼터스 성전에 가게 되었다. 나는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았기에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으리라 생각했다.

성전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날 오후에는 침례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이제 두 시간 반 동안 뭘

하지?’

나는 길 건너에 있는 몰몬 트레일 방문자센터에 가기로 했다. 개척자들에 대한 15분짜리 영화가 끝나자 안내를 맡은 두 자매 선교사들이 나를 반겨 주었다. 대회를 조금 나눈 후에 쿠식 자매는 나에게 왜 아직 선교 사업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평소와 같은 변명거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자 쿠식 자매는 개척자들뿐만 아니라 선교 사업에 대해서까지 내게 간증을 전했다.

안내가 끝난 후 나는 성전 대기실에 앉아 생각했다. 선교 사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내 이유가 갑자기 혼란스럽게 느껴졌다. 영은 내게 선교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간증했다. 자매 선교사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한 이후로

내가 왜 선교 사업을 하지 않았는지 설명하자 쿠식 자매는 개척자들뿐만 아니라 선교 사업에 대해서까지 내게 간증을 전했다.



내 안의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영은 내 마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 주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나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 쿠식 자매에게 나를 안내해야 한다고 속삭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쿠식 자매도 이유를 몰랐겠지만, 주님께는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셨다.

나는 세계 최고의 선교부인 캘리포니아 벤틀라 선교부에서 봉사했으며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바라는 멋진 우정을 쌓았다. 나는 10년 동안 헌터 회장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지만 회장님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아셨다.

성신의 속삭임에 따른 한 자매 선교사 덕분에 내 삶은 완전히 변했다. ■

네빌 스메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주님은 나의 노래이니

나는 애리조나의 작은 마을에 살았는데 그곳은 후기 성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 곳이어서 선교사들과 교회 회원들이 교회에 대해 알리려고 나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종종 아이들과 나에게 교회에 참석하거나 또는 경전을 읽거나 아니면 두 가지 모두를 하도록 권유했다. 그런 제안에 관심은 없었지만 그래도 내 가족에게 관심을 보여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정중히 건넸다.

한 여성(나중에 나와 결혼하게 되었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후기 성도라고 말해주었다. 영적인 부분에서 그녀를 존경했고 그래서 결혼 후에 그녀와 함께 교회에 참석하겠다고

했다. 나는 그 약속을 잘 지켜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심지어는 그곳의 분위기와 사람들도 매우 좋아했다. 하지만 경전을 공부하고 교회에 참석하며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기도해도 역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대해서는 의심이 갔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무신론에 기초한 나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는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노력을 시작하기 전과 비교해 보아도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 없었기에 침례 권유를 거절했었다.

6개월 정도 교회에 참석했을 때, 미군에서 복무하셨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 가족과 나는 묘지 앞에서 영결 나팔이 연주되길 원했고 내 직업이 또한 음악가였기에 내가 영결 음악을 연주하도록 제안을 받았다. 묘지 영결식에서 수도 없이 연주를 해보았지만 이번은 아버지의 영결식이었기에 그 느낌이 사뭇 다를 것이라 생각했다. 또 어머니의 장례식 때 격양된 감정으로 연주를 잘 할 수 없었던 것이 기억났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장례식 때처럼 감정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다.

영결식이 시작되기 몇 분전, 초조한 마음으로 연습을 하려 했다. 잠깐 연습을 하며 입에서 연주 음악이 흘러나가는 것을 들었을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눈물이 고였고 울음이 터졌다. 그렇게 흐느끼자 숨도 쉬기 힘들었다. 어떻게 연주를 할 수 있을까?

내 명성에 신경이 쓰이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아버지께 정말로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 연주를 시작하자 숨을

완전하게 들이실 수가 없었다. 내가 원래 도움을 청하는 성격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그외 달리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첫 음을 연주했는데 소리가 약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했다. “제발요.” 두 번째 음을 연주하는 순간, 폐는 공기로 가득차고, 소리가 나팔에서 아름답고 우렁차게 퍼져나갔다. 곡의 나머지 부분까지도 내 능력 이상으로 연주를 해냈다. 마지막 음을 마쳤을 때 갑자기 숨이 차기 시작했고 눈물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나는 음악가로서 나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최상의 상황에서도 나는 그렇게 잘 연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간청에 응답하시고 아버지께 경의를 표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이 분명해 보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특별한 증거를 받았다.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이 응답해 주셨기에 그분이 우리들과 언제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신다는 것도 깨달았다.

몇 달 후 걸림돌이 되었던 무신론주의를 버리고 교회에 들어왔다. 침례 받기 위해 신앙의 도약이 필요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축복해주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영결 나팔을 연주하는 동안 경험했던 일로 그분이 내 필요 사항에 따라 그리고 내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배웠다. ■

톰 설리번, 미국 애리조나 주

랜들 케이 베네트
장로
찰십인 정원회



선지자를 따르라

저는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하고 이들이 지난 후 종교 교육원 활동에 참석했다가 훗날 제 아내가 된 천사를 만났습니다. 셸리와 저는 서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캐나다의 다른 지역에서 성장하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몇 개월을 지내면서 서로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 번이나 청혼을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는데, 그것은 바로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셸리의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고 나면 함께 선교 사업을 하자는 약속을 한 후에야 셸리는 저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1976년 12월 22일, 셸리는 약혼 반지를 손에 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며칠 동안 우리 둘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결혼한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반지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를 따르겠다는 결심

약혼하기 전 몇 주 동안 셸리와 저는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 어떤 결혼 생활을 원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나눈 토론의 중심 주제 중 하나는 항상 선지자를 따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약혼하기 2개월 전, 저희는 1976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자립의 원리를 재차 강조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원리는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과 다른 지도자들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르치신 주제였습니다. 셸리와 저는 모두 뜰에 채소를 가꾸고, 음식을

비축하며 성장했기 때문에, 대체로 자립을 위한 준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차 대회에서 준비라는 주제가 유난히도 반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부 연사들은 그 해 6월에 있었던 테톤 댐 범람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이신 바바라 비 스미스(1922~2010) 자매님이 자립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당시 권고하던 것처럼 1년치 식료품을 비축하는 것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¹ 김볼 회장은 대회 마지막 모임에서 회원들에게 누가복음 6장 46절에 나오는 구주의 질문을 상기시키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런 후 김볼 회장은 성도들에게 그 대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가정과 앞으로의 삶”²에 적용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약혼을 하고, 셸리와 함께 결혼과 가족 생활을 시작하는 것에 관해 신중히 생각하는 동안 이 메시지가 저희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가정 비축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당시 전해진 권고에 순종하려면 1년치 음식 비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학생이었고, 아직 학업을 마치려면 몇 년이 남아 있는데다 돈도 많지 않았습니다. 성신은 저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같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약혼 반지를 팔아야 한다는 응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셸리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제 막 반지를 건네주었는데 말입니다. ‘약혼 반지를 팔아 귀리와 밀가루, 쌀을

보통 약혼 반지는 혼약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아내와 저에게는 약혼 반지가 없는 것이 주님과 그분의 선지자에 대한 우리의 서약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자고 하면 셸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반면 셸리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골라준 반지를 팔자고 말했을 때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기에, 제가 상처받을까 봐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각자에게 임한 속삭임이 너무 강해 덮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각자가 그 문제에 관해 생각하면 할수록 다이아몬드 반지가 눈 앞에서 더 반짝거렸습니다. 성탄절을 지내고 며칠이 지난 뒤, 셸리가 그 문제에 관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셸리가 제가 받은 것과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여러 면에서 저희 두 사람 모두에게 결혼하기로 선택한 사람에 대한 큰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서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일치한다는 점을 알게 되어 정말 안심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를 따르기 위해 그와 같은 희생을 기꺼이 감내한 셸리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오해하여 여러분의 반지를 팔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약혼 반지를 사거나 끼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출가한 저의 자녀들은 모두 아름답고 적절한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을 따르며 그들의 조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영이 약혼 반지를 팔아서 선지자를 따르라고 지시했고, 저희는 반지를

간직하는 것과 선지자를 따르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선택 덕분에 저희 가정에는 처음부터 두 가지 행동 방식이 확립되었습니다. 바로, 선지자를 따르는 것과 개인적으로 받는 영적 속삭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결정에 대한 반응들

제가 반지를 샀던 보석상은 성탄절 이후 일주일 정도 휴무였는데, 상점 문을 다시 열자마자 저는 보석 판매상에게로 갔습니다. 어쨌든 착용한 반지는 중고품이라 여겼기 때문에 환불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반응이 나올 것에 대비했고, 그러면 제값에 훨씬 못 미치겠지만 중고 가격에 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보석 가게 주인의 마음은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돈을 받아 들고 문을 나섰고, 순종하려는 저희에게 주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 주셨는지를 생각하며 놀라움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내린 결정을 잘 이해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회원을 포함하여 친구들은 저희가 한 일에 대해 듣고, 또 셸리가 낄 수 있도록 제가 만든 수수한 가죽 반지를 보고는 제정신이냐고 물었습니다. 셸리 또래 여성들은 셸리가 기꺼이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극히 소수만이 격려해 주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셸리는 강인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계없이 자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셸리는 자신이 선지자를 따르고 있음을 아는 데서 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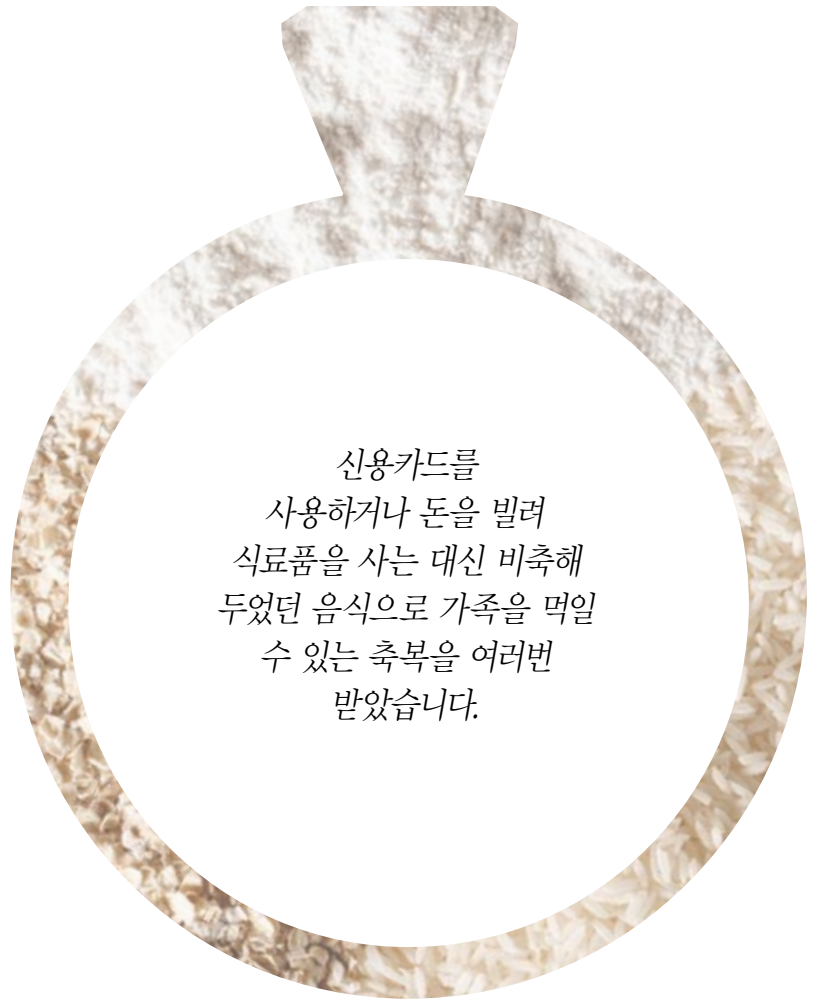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주께서 저희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도록 두 친구를 보내 주셨습니다.

제 친구 밥과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프랜에게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후에 저희 셋은 모두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프랜은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한 후에 밥과 약혼했습니다. 그 두 친구가 좋은 소식을 전하러 저와 셸리에게 찾아왔을 때, 저희는 그들도 약혼 반지를 사는 대신 그 돈을 식료품 비축을 하는 데 쓰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네 사람 모두에게 비슷한 일을 하도록 영이 인도해 주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성신과 살아 있는 선지자를 따르겠다는 결심은 저희의 우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으며, 그 우정은 이후로 4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순종에서 오는 축복

셸리와 저는 1977년 1월부터 결혼을 하는 그 해 4월까지 가정 비축을 위한 기본 식료품을 조금씩 계속 사 모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 댁에 식료품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셸리는 제가 학부를 마치고 치과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결혼 반지로 그 가족 반지를 껴줍니다. 학업에 정진하는 과정에서 저의 가족은 여러 번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밀이 담긴 통들을 이 아파트에서 저 아파트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끌고 다니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이사 때면 저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 저희는 교회 지도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돈을 빌려
식료품을 사는 대신 비축해
두었던 음식으로 가족을 먹일
수 있는 축복을 여러번
받았습니다.

권고를 따랐던 것에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치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치과를 개업했을 때, 셸리와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고 재정 상태는 말 그대로 바닥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는 결혼 전에 구입해서 비축해 두었던 식료품으로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언과도 같은 권고에 순종했기에 제가 학교를 더 다녀서 치과 교정 수련의로 있던 시기에도 저희는 다시금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결혼하고 10년도 더 지난 시점이었는데, 또 다시 돈이 바닥났습니다. 저희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돈을 빌려 식료품을 사는 대신 비축해 두었던 음식으로(네 자녀로 불어남) 가족을 먹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축복을 받아 왔습니다. 저희는 선지자와 사도들이 가르치는 내용의 타당성을 문제 삼거나 이치에 맞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대신 그분들의 권고대로 행했을 때, 그것도 즉시 행했을 때 우리 삶이 축복받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다

어떤 이들은 저희의 행동을 맹종이라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직접 주신 약속, 즉 선지자들은 결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³ 이 약속을 알면 선지자의 말씀을 주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38

참조)

저희는 또한 살아 있는 선지자들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권고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령이나 훈계와 같은 단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하는 방식은 친절하고 온화하지만, 그렇다고 따르지 못할 핑곗거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의 권유를 계명처럼 받아들였을 때, 셸리와 저는 항상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으며 그분들의 인도를 분별해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해야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에 관해 몇 가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이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여 이와 유사한 표현들은 주님의 부르 받은 종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떠오르는 바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그분들이 다른 선지자나 사도들의 말씀을 인용할 때 특별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분의 말씀을 확증하실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고린도후서 13:1; 교리와 성약 6:28 참조)

자립에 관한 메시지는 저희가 약혼하기 이전부터 연차 대회에서 여러 번 반복되었기 때문에 아내와 저는 그 메시지가 특별히 당시의 저희에게

해당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권고를 따르는 것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를 따른다고 해서 항상 헌신을 바깥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아주 사소하거나 더욱 개인적인 방법으로 순종을 나타내 보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주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따라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며,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셸리는 좀 더 일반적인 결혼 반지를 끼고 있지만, 소박했던 그 가족 반지를 우리가 지내 왔던 시절을 기억하는 기념품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그 가족 반지는 가족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선지자의 권고를 항상 따르겠다는 맨 처음 결심을 상기시키는 상징물입니다. 이제 저희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주님의 선지자이신 토마스 에슨 몬슨 회장님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자녀들의 가족 생활에서도 일부가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이 순종은 훌륭한 유산이며 약혼 반지와 마찬가지로 성약을 지키는 확실한 상징입니다. ■

주

1. 바바라 비스미스,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20~121쪽.
2. 스펜서 더블유 킴볼, “인간을 위한 사업”,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10쪽.
3. Harold B. Lee, “The Place of the Living Prophet, Seer, and Revelator”(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직원에게 주신 말씀, 1964년 7월 8일), 13; Marion G. Romney, in Conference Report, Oct. 1960, 78; The Discourses of Wilford Woodruff, ed. G. Homer Durham(1946), 212-13 참조.



이제 셸리는 일반적인 결혼 반지를 끼고 있지만, 소박한 가족 반지(아래)를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반지는 선지자를 따르겠다는 맨 처음 결심을 나타내는 상징물입니다.





회개에 한도라는 것이 있나요?

만일 제가 똑같은 일로 거듭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한도에 이르게
될까요?

다 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자비는
실로 무한하며, (2) 진정한 회개는
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속죄 덕분에 같은
실수를 여러 번 저지른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엘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라, [주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초청을
보내시나니, 이는 자비의 팔이
그들을 향하여 펴져 있음이라.

그가 이르시되,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엘마서
5:33)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자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회개는 하루하루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죄를 범하고 매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 아닙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74쪽)

그렇다면 회개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조셉
스미스에게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교리와 성약 58:43)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또한 엘마는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가 자비를
얻을 것이며, 자비를 얻고 끝까지
걸디는 자 그 같은 자가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엘마서 32:13;
강조 첨가)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버리며, 삶이 다하는

날까지 충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정한 죄를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진실한 회개에는 한도가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내세워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과 감독님 또는 지부 회장님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들의 사랑과 지지와 조언은 여러분이 죄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비회원도 성찬을 취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빵과 물은 교회 회원들을 위한 것이고 성찬을 취하면서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찬식 동안에 비회원이 성찬을 취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비회원인 친구와 가족을 교회에 초대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며, 우리는 그들이 교회 모임에서 환영받는다느 느낌과 함께 편안함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미리 성찬의 목적과 그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하여 준비를 하고 성찬식에 참석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도 성찬을 취해야 하는지에 관해 물어본다면,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찬은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는 교회 회원들을 위한 의식이라고만 말해 주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 맬린 에이지 옥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찬 의식을 통해 성찬식은 교회에서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모임이 됩니다.”(“성찬식과 성찬”,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17쪽) 우리는 비회원이 모임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도와주어야 함과 동시에 이 중요한 의식을 이해하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

동물에게도 영이 있나요?

동물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동물에게도 영이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77:2~3 참조) 물론 동물의 영과 사람의 영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태어났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따르면,

하늘에는 적어도 몇 가지 동물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 있는 기묘하게 생긴 짐승들을 보았습니다. …… 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13 참조)

저는 요한이 셀 수 없이 많은 이 지구와 같은 별에서 구원된 수천 가지 형태의 생물을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생긴 짐승에 대해 우리는 전혀 아는 바가 없지만 하늘에서는 그 모두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짐승이든 새나 물고기 또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만드신 모든 생물을 구원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영광을 더하셨으며, 또한 그분이 그들과 함께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임을 배웠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5:343)

따라서 우리는 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도 구원받아 불멸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



나의 성전을 보살핍시다



건강한 선택이 건강한 나를 만듭니다.
(교리와 성약 89 참조)

아모스 3장 7절

이 성구는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을 가르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와 관심이 행복을 가져올

수 있거나, 우리의 무관심이 슬픔을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과 관련된 이생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우리에게 확실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때때로 그분은 영감으로 어떤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 외에도 그분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영감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단지 귀 기울여 듣기만 한다면 자신들이 진리를 들어 왔으며 경고를 받아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가족”, 리아호나, 1998년 10월호, 12쪽.

계시를 주시는 분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분의 선지자들과 대화하십니까?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성신을 통한 영감.(베드로후서 1:21 참조)
- 꿈과 시현.(민수기 12:6; 니파이전서 8:2 참조)
- 천상의 존재가 직접 방문함.(조셉 스미스-역사 1:16~17; 교리와 성약 110:8 참조)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영감의 영의 영감을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7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8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기가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종, 선지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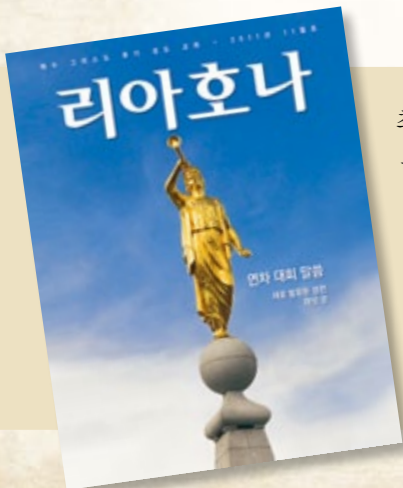
“경전은 주께서 살아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 인간의 자녀에게 그분의 계명을 주신다고 반복해서

선언합니다. 어떠한 위원회, 의회, 또는 기타 어떤 당국도 그분의 율법에 어긋나는 교리를 그분에게 지시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은 그분의 거룩한 선지자를 통해 계시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을 믿는다”,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88쪽.

자기의 비밀

성경에 쓰인 비밀이라는 단어는 본래 히브리어로 “권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의 계획 또는 의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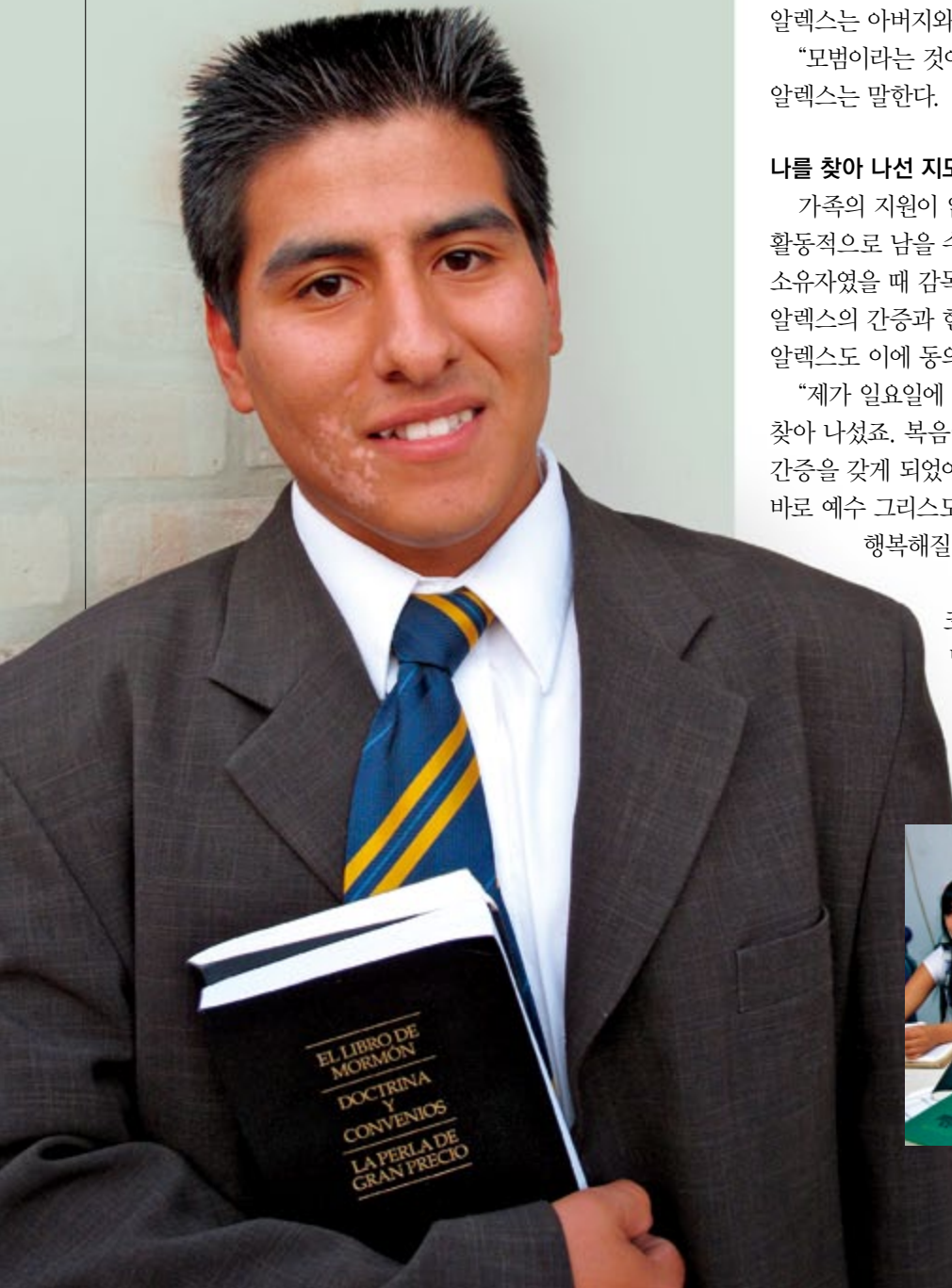


최근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최근 연차 대회(conference.lds.org 참조)를 살펴보고, 주님의 종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행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은 것을 일지에 적어 보십시오.

편집자 주: 이 기사는 선정된 성구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학습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알렉스의 위대한

알렉스 에스코바는 빛을 높이 치켜들어
가족에게 영원한 변화를 가져왔다.



알렉스 에스코바는 여러 해 전 아론 신권 교사였을 때,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 당시에는 자신이 선교 임지에 갈 때 아버지가 자신의 감독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다.

그 이유는 알렉스의 아버지가 10년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때 당시 혼자 교회를 참석하던 알렉스는 아버지와 가족들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다.

“모범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알게 되었죠” 알렉스는 말한다.

나를 찾아 나선 지도자들

가족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청년이 어떻게 교회에 활동적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 알렉스가 아론 신권 소유자였을 때 감독이었던 마리오 세이아스는 그 공을 알렉스의 간증과 헌신적인 청년 지도자들에게 돌린다. 알렉스도 이에 동의한다.

“제가 일요일에 교회에서 보이지 않으면 지도자들이 저를 찾아 나섰죠. 복음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다가 마침내 강한 간증을 갖게 되었어요. 교회에 계속 나간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가족으로서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 있는 교회 친구들 중 일부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굳건히 남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지혜의 말씀이나 순결의 법을 어길 수 있는 유혹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범

합당한 아내를 맞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요건은 바로 자신이 합당해지는 것이죠. 그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이아스 감독에게서 받은 권고를 통해 힘을 얻었던 알렉스는 말한다.

알렉스의 간증은 전임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 꿈을 끈 이후 더욱더 커졌다. 알렉스는 준비를 시작했지만 복음을 나누기 위해 19세가 되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았다. 가족들에게 이미 시작한 것이다.

“알렉스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합니다.”라고 세이아스 감독은 말한다. “그리고 알렉스는 형이 교회에 참석하도록 언제나 격려하죠. 가족을 다시 데려오려는 노력은 알렉스 때문에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강팍했던 나”

알렉스의 아버지인 레네는 교회 밖에서 지낸 지난 13년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놓친 부분에 대해 아쉬워한다.

“그 시기들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레네가 말한다. “복음대로 훌륭히 살지 못해 놓쳐버린 시간들이 가끔씩 떠오르곤 했습니다.”

알렉스 가족은 알렉스가 어렸을 때 코르도바에서 교회에 들어왔다. 그들은 알렉스가 침례 받은 직후 고국이었던 볼리비아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활동적인 회원이었다. 볼리비아에서 사는 동안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잊었던 거죠.”라고 아버지 레네가 말한다.

2년 후에 코르도바로 돌아간 후 알렉스의 어머니인 카르멘은 때때로 자녀 넷과 함께 교회에 참석했었다. 하지만 축구를 열성적으로 했던 아버지 레네는 토요일에 경기를 하고 관련된 활동, 주로 지혜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던 그런 활동에 참여하다 보면 일요일은 내내 잠만 자면서 보내곤 했었다.

“제가 마음이 강팍했었죠.” 아버지 레네는 말한다. “때로는 완전히 방향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느낌은 성신이 함께하지 않을 때 들게 되죠.”

아버지 레네는 자신의 행동으로 자녀들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제 아들들은 제가 활동 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에 참석할 때 고아와 같았습니다. 제 삶과 제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에 대해 점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아버지 레네는 말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으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해 한다. “아버지로서 맡고 있는 책임에 걸맞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로 주님을 기억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제가 다시 돌아가도록 그분께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레네의 신앙심과 간증이 커지자 여러 개의 부름도 뒤따랐다. 그는 복음을 다시 받아들인 후 몇 해가 지나지 않아 주님이 새로운 중요한 부름을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셨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결과로 아버지가 저의 감독님이 되셨습니다.”라고 알렉스가 말했다.

모범의 중요성

알렉스가 아르헨티나 레지스테니카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동안 모두가 그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렉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에 감사해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2009년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성전에서 인봉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해한다.

“알렉스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와드 회원들과 함께 노력했습니다. 와드 회원들은 부모님이 교회로 돌아오도록 알렉스가 늘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스가 우리에게서 희망을 저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카르멘이 말한다.

레네 감독은 감독으로 부름을 받은 후에 선교 임지에 보낸 첫 번째 선교사가 알렉스여서 매우 행복해한다. “아들이 선교 사업을 나가게 하는 것이 정말 좋았죠. 우리 모두 알렉스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알렉스를 가장 그리워했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알렉스가 저를 지지해주었기 때문이죠.” 하고 레네 감독이 말한다.

후기 성도가 좋은 모범을 보인다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된다고 알렉스는 말한다. “교회에서 행복하고 만족해한다면 다른 사람도 우리의 행복을 경험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어떻게 하면 성전 의식에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은 주께서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거룩한 성전을 가까이에 둘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 시대에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돌려 말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회원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성전에 가기 위해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니다. 하지만 성전이 가까운 곳에 지어져서 가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데도 정기적으로 성전을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안을 한 가지 드립니다. 성전이 근처에 있어도 사소한 일들 때문에 성전에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전 의식에 언제 참여할 수 있고 또 언제 참여할 것인지, 여러분의 여건을 감안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계획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성전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도 성전에 참석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하여 긴 여행을 하는 분들만큼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운영 중인 성전에서 제공하는 의식에 더 자주 참석하겠다는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시도록 권고 드립니다. 그 어떤 것이 성전 의식에 참석하고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 어떤 활동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주겠습니까?

이제 성전 의식 참여를 통해 어떻게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 성전 의식과 관련된 교리,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의미를 이해하십시오.¹
- 성전 의식에 참여하는 동안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간단한 실천 하나가 성전 의식의 지고한 본질을 좀 더 잘 이해하게 해 줄 것입니다.
- 성전 의식을 통해 오는, 그 어디에도 비할 바 없는 축복들에 대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러한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을 매일매일 사십시오.

- 성전에 정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하십시오.
- 성전 경내에서 서두르지 않도록 여유 있게 가십시오.
- 주님의 집에 들어갈 때 시계를 벗어 놓고 가십시오.
- 생각과 마음의 문을 열고 의식의 각 부분들을 주의하여 들어 보십시오.
- 여러분이 대리 의식을 수행해 드리고 있는 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따금 그분이 그 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의식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당하거나 또는 합당하게 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가끔 성전 헌납식 때 합창단의 노래를 듣다 보면 마음과 생각이 고양되는 매우 장엄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면 많은 분들이 역원뿔 모양으로 성전에서 출발하여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머릿속에 몇 번이고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것은 그 성소에서 자신을 위해 대리 의식이 수행되기를 기다리던 무수한 영들이 영원한 진보를 할 수 없도록 자신들을 묶은 사슬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여러분이 대리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조상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FamilySearch 프로그램 덕분에 이전보다 더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상들을 찾아 그들이 자격을 갖추어 주님의 집으로 와서 그분들이 바라던 의식들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전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

2009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주


1. 시작하기에 적절한 성구는 교리와 성약 88, 109, 131, 132편이다.

그 어떤 활동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주겠습니까?



홀로 있더라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조슈아 제이 퍼키
교회 잡지



어디에 사는 누구라도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고
느낄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럴
때에라도 계속 옳은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 과도르 쿠엥카 출신인 18세 소년 완 카브레라는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 완은 약 오십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몇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 중 한 명이다. 그곳은 유혹을 가하는 압박이 높다. 그러나 완은 그 어떤 유혹보다 강한 힘의 원천이 있음을 안다.



집중력을 키우고

부모님은 완이 어릴 때부터 삶을 축복하는 표준을 따르도록 가르쳤다. 이러한 기준은 완이 성장하고 재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와 청남반에서 악기를 배우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는 바이올린, 플루트, 피아노, 그리고 이제 기타를 연주합니다. 저는 기타가 가장 좋습니다.”

완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에 기반한 운동 목표를 세웠다. 지금까지 완은 태권도, 수영, 체조를 배웠으며 학교 육상부에 속하기도 했다.

“저는 배우는 걸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뭔가를 더 배우기 위해 늘 새로운 악기나 운동에 도전해요.”

이러한 목표는 좀 더 큰 목표의 기반이 되었다. “제가 한 모든 일, 제가 한 모든 공부, 제가 한 모든 신체적 준비, 제가 세운 모든 목표, 이 모든 것은 선교 사업을 하겠다는 목표 아래 한 일입니다. 그러나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은 다른 목표의 일부일 뿐이에요. 바로 성전에서 인봉 받고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한 것이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토록 깊은 집중력에도 불구하고 완은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완은 다른 청남들에게서 큰 힘을 얻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이사하거나 장로정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상황이 어려워졌을 무렵 완을

도와줄 교회 친구는 얼마 없게 되었다. 그때 완은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힘을 얻으려 했다.

“남들과 기준이 다르고 생활 방식과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다르고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때때로 혼자라고 느낄 때도 있지요. 하지만 사실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라고 완은 자신 있게 말한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늘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친구들은 옳지 않은 일을 할 때, 그런 친구들에게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해요.

그렇게 했더니 친구들은 때때로 제 모범과,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제 용기를 칭찬해요.”

굳건히 서며

완에게 다가온 유혹 중에는 거부하기 쉬운 것도 있었다. 친구가 술을 마시자고 할 때면 쉽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것은 명백히 계명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유혹이 좀 더 교묘한 방식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경전에 나오는 것처럼 때때로 유혹은 위장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마태복음 7:15 참조] 그러한 유혹은 특정 계명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나쁜 일이 아닌 듯이 보일 수도 있지요. 바로 그럴 때 기도를 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해요. 많은 경우 무언가가 잘못되거나 사람들이 제가 나쁜 일을

하도록 부추길 때 영은 제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도록 해 주었어요.”

선교 사업을 위해 준비하면서 완은 그에게 힘이 되는 새로운 교회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

“저는 이제 다른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고, 그것은 제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저는 강하고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맨 위: 완과 가족. 위: 쿠엥카를 가로지르는 네 개의 강 중 하나

스테파니 구드문슨

매일 쌓는 간증

나는 한순간의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매일 복음대로
생활하면서 간증을 얻는다.

나는 성장하면서 나에게 간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줄 한순간의 기적을 늘 바라 왔다. 나는 사람들이 복음이 참됨을 의심할 여지없이 깨닫게 되었을 때 기적적인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 유혹이나 위협에 맞선 이야기, 작고 단순한 행동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한 이야기, 살면서 곤경에 처할 때 경전을 펼쳤는데 거기에 응답이 있었다는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내용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드는 이야기는 밤에 집에 무사히 도착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보호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뿐만 아니라 기적적인 병 고침이나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다. 나는 나에게도 그런 순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나에게 교회에 대한 간증이 있다고 말해 주는 천사와 빛을 보고 싶었다.

부모님은 기도하고, 교회에 가고,
경전을 읽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세상적인 영향력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삶을
살고, 주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확신했다.
나는 단지 나에게
간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원했고, 누군가가 나의 간증을 알아봐 주기를 바랐다.

이따금 가정의 밤이나 주일학교에서 또래 압력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될 말들을 연습하기도 했다. 나는 그런 말들을 사용해 보고 싶어서 좀이 쑤셨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았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데 누군가가 술을 꺼내 돌린다. 맥주잔이 나에게 건네지고,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쏠린다. 압박감이 점점 더해진다. 나는 일어나서 “싫어! 난 몰몬이야. 술은 안 마신다고!”라고 말한다. 모든 아이들이 흠칫 놀란다. 어떤 설득에도 나는 넘어가지 않는다. 곧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들 중 특별한 누군가가 나의 확고한 태도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 우리 교회에 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한다. 천사들이 찬양하고 나는 빛으로 충만해진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유혹을 하는 사람조차도 없었다. 다른 이들은 이미 내 생활 방식을 보고 나의 표준을 아는 듯했다. 실망스럽게도 내가 바라던 “영광스러운 순간”은 결코 오지 않았다.

이제 나는 간증이 천사가 나타나야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안다. 간증은 매일 복음대로 생활하고, 성신의 증거를 느끼고, 순종할 때 받게 되는 소소한 축복에서 얻게 된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안다. 구주께서 내 죄를 대신해 속죄해 주셨다는 것도 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이것을 알기에 마음에 평안을 얻는다.

기적적인 경험을 하고서 이 교회가 참됨을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도 간증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행복하다. 그러므로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나는 그 순간까지 나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아는 작은 축복에 만족하며 평범한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이다. ■



우리들 공간

영감을 주는 성구

- 어머니는 경전에서 영감 어린 가르침을 주고자 하실 때면 엘마서 37장 37절을 인용하십니다.
- 얼마나 많이 나누셨는지, 저희는 어머니가 구절을 읽으실 때 외운 내용을 따라서 말합니다.
- 저는 어머니가 왜 그 구절을 계속 나누시는지 종종 궁금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기도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아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 어머니의 마음을 마침내 깨닫고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시련이나 고난을 겪을 때 저는 잊지 않고 그 구절을 읽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항상 기억합니다. 저는 제가 받은 모든 축복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시련을 겪을 때에도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에 대한 저의 관점을 어머니가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지 저는 늘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 엠, 필리핀

나는 왜 선교 사업을 하는가

선교 사업은 위대하다! 내가 선교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고향에 있는 우리 지부로 온 선교사 때문이다. 한번은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었다. “장로님,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과도 떨어져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형제님, 제가 선교 사업을 나온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 들어 보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모사이야서 28:3 참조)

그 장로님의 영향으로 나는 지금 선교 사업을 하고 있다.

페레스 장로, 필리핀
바기오 선교부



영국 런던 성전을 찍은 이 사진은 오빠가 선교 사업을 나가기 전에 엔다우먼트를 받을 때 가족과 함께 가서 찍은 것입니다. 저는 오빠가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가족들이 성전 안에 있는 동안 저는 평화로운 성전 뜰을 걸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생각했습니다. 주님과 가깝다고 느끼기 위해 꼭 성전 안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언젠가 성전 축복을 받는 일이 얼마나 기대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성전에서 나올 때 보여 준 기쁜 표정을 보며 제 간증은 더 굳건해졌습니다. 저는 오빠가 구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꼈고 성전 축복은 다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특별한 그날을 기억하며, 옳은 일을 하는 데 더 집중합니다. 저는 이 사진을 액자에 넣어 침실에 걸어 두었습니다. 언젠가 주님의 집에 들어가 엔다우먼트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생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늘 생각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제 페이스북에 올렸고, 무척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두 이 사진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사진은 제게 복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었습니다.

에밀리 엠, 영국



누구와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참된 기쁨

멜리사 루이스

“그리고 만일 너희가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교리와 성약 18:15)

감독님이 이 성구를 읽는 순간 내 가슴은 뛰었다. 내가 복음을 소개한 누군가가 침례를 받는 현장에 함께한 내 모습이 그려졌다. 친구는 무척 기뻐하고, 내 친구가 내 덕분에 침례를 받는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리라. 내 기쁨은 넘쳐나리라.

곧바로 안젤라가 떠올랐다. 나와 제일 친한 친구이며, 복음이 필요한 아이였다. 복음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안젤라가 느끼는 의문을 해소하고 힘을 얻을 것이다.

이튿날 나는 안젤라에게 물었다. “안젤라, 토요일에 교회에서 바비큐를 먹을 거야. 같이 갈래?”

“좋아, 재미있을 것 같아.”

안젤라는 바비큐를 먹으러 왔고, 그 후 수개월간 나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교회 활동에 그 친구를 초대했다. 활동이 끝날 때마다 나는 이렇게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이것은 영원한 원리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고 나는 행복했다. 이제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거둘 수 있으리라.

어느 겨울 성탄절 바로 전날 밤, 안젤라와 함께 워싱턴DC 성전에서 산책을 하기로 했다. 우리가 걸을 때 성신이 우리를 감싸 주었고, 나는 안젤라 또한 뭔가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떤 기분이 들어?” 내가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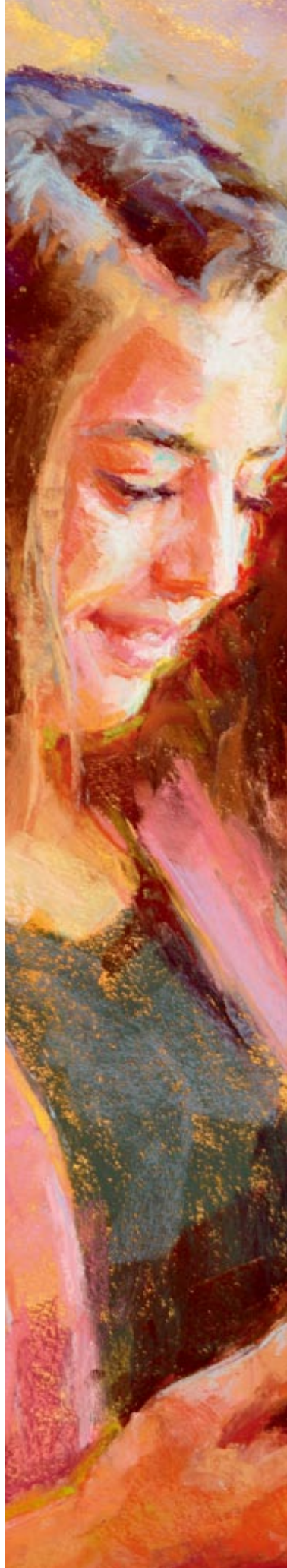
“침례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잠깐만.” 내 얼굴에 띤 희색을 보는 순간 안젤라가 주의를 주었다. “지금은 침례를 받을 수 없고 선교사들도 찾아오면 안 돼. 부모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네가 아는 걸 모두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겠니?”

나는 놀랐고, 겸허히 말했다. “그래, 내가 아는 모든 걸 가르쳐 줄게.”

같은 날 밤 나는 내가 한 약속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내가 아는 모든 것? 하지만 만약 내가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 내 간증은 충분히 강한가? 이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가?

나는 이튿날부터 복음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공부하여 그 진실함에 대한 참된 간증을 얻기로 다짐했다.

매일 밤 열정을 담아 경전을 읽기 시작했다. 안젤라와 내가 이 복음이 참됨을 알게 되기를 간구하면서 내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다.



심화: 폴리 로저스



그 결실은 천천히 찾아왔다. 토론 과정에서 나는 간혹 성신의 인도를 받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들을 말하기도 했다. 간증을 나누면서 내 간증이 더 강해졌다. 경전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왔다.

부모님도 나를 도와주셨다. 소중한 정보를 얻는 근원이 되어 주셨고, 나는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었다.

5년이 지났지만 안젤라는 아직도 교회 회원이 아니다. 내 8학년 시절 기대치를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한다면 나는 분명히 실패했다. 침례식에 앉아 친구를 복음으로 데리고 왔다는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기쁨은 누리지 못했다. 그렇지만 내가 기대하는 바가 달라졌다. 내 영혼은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갔다. 안젤라는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내가 한 공부와 가르침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는 복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으며, 그녀와 복음을 나누는 것은 나의 개심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좀 더 효과적으로 이웃과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었다.

교리와 성약에서 약속한 기쁨은 세상의 칭찬을 뜻하지 않는다. 내 기쁨은 넘쳐난다. 이제 구주를 더 잘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을 얻은 까닭이다. ■

최고의 축구



“예수님은 누구나 사랑하려했죠, 내가 사랑할 때에 남도 사랑해.”(어린이 노래책, 39쪽)

앤지 버그스트롬 밀러
실화에 근거

나는 두 주먹을 쥐고 입술을 악물고서 나한테 굴러오는 공을 찼다. 그리고 눈살을 찌푸렸다.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선 밖으로 날아가 버린 것이다.

넌이라는 여자 아이가 울타리 옆에 서서 시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아이는 공을 주우러 신나게 달려가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모두들 웃었다. 그 애가 공을 우리에게 던져 주었으나 아무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양심이 찢렸다. 나는 넌이 같이 놓고 싶어하는 것을 알았지만, 나서서 그

애를 부르지 않았다.

넌은 조용하고, 지저분한 갈색 머리에 두꺼운 안경을 쓰고, 새된소리로 말하는 아이였다. 반 전체를 통틀어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내가 그 애를 좋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단지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없을 뿐이었다.

그날 오후 선생님은 자리를 모두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새로운 좌석 배치도를 만들 계획이었다.

교실 전체가 술렁였다. 제일 친한 르안나와 나는 서로를 보며 씩 웃었다.

바로 그때 캐롤라인이 내게 몸을 기울였다. “넌이 네 곁에 앉고 싶다고 마틴 선생님께 말씀드렸대. 웬일이니!”

깜짝 놀랄 일이었다. “왜 나랑?”

궁금했다. 넌에게 못되게 군 적은 없었지만, 상냥하게 대한 적도 없었는데……

“그 애 옆에 앉고 싶지 않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려. 안 그러면 아무도 네 곁에 앉으려고 하지 않을 테니.” 하고 캐롤라인이 속삭였다.

나는 넌을 쳐다보았다. 그 애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교실에 있는 아이들 모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같았다.

마틴 선생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었다.

선수

“나는 좋은 친구들을 찾고,
이웃을 친절히 대할 것이다.”
나의 복음 표준



하지만 낸과 친구가 된다면 모두 나를
이상한 아이로 여길 것이다.

“누구 옆에 앉고 싶니?” 마틴 선생님이
물으셨다.

나는 “르안나요.”라고 말했다. 그건
쉬웠다.

마틴 선생님이 방긋 웃으셨다. “넌
옆에 앉고 싶지는 않니?”

나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싶지는
않아요.”

마틴 선생님은 놀란 듯했다.
“정말이야, 앤지?”

“네.”라고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튿날 우리 자리는 새로 배치되었다.
나는 르안나 곁에 앉았다. 낸은 교실
저편에 있었다. 그 애 곁에 앉은 여자애
두 명이 낸의 책상과 떨어져 앉아서 마치
낸은 홀로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낸은 곧 울 것만 같았다.

몇 주 뒤 낸은 학교를 옮겼다. 우리
와드의 한 여자애가 그 학교로 전학을
갔다. 나는 그 친구에게 낸이라고 하는
새 친구를 만나 보았는지 물었다.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겼지?”

“음, 아주 조용해. 머리는
형클어진데다 두꺼운 안경을 썼지. 우리
반에서는 누구도 그 애를 좋아하지
않았어.”

“정말이야? 그렇다면 다른 애인가 봐.”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는
새로 온 아이는 무척 재미있어. 모두 그
애를 좋아하지. 게다가 그 애 축구를
정말 잘 해.”

나는 낸이 우리 축구 경기를 지켜보던
그날을 생각했다. 낸에게는 기회와
친구가 필요할 뿐이었다. 사실 나는 그
두 가지 모두를 베풀 수도 있었다.

그날 나는 언제나 모든 이에게
상냥하게 대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낸과
같은 아이와 사귀어 보려는 노력도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리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

우리들 이야기



나스타 엘, 12세, 우크라이나



티나 엠, 10세, 콩고



영을 느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교회에 가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곳에서

영을 느끼기 때문이죠. 하루는 초등학교에서 현대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집에서 유산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관한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선지자의 죽음을 알리는 장면이 나왔는데 정말 슬펐습니다. 그때 영을 느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참된 교회를 회복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월에 우리 가족과 친척들이랑 에콰도르 과야킬에 있는 성전에 갔습니다. 정말 평온하고 행복해서 집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며,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였음을 압니다.

아론 시 10세, 콜롬비아

선지자를 따름으로써 어떻게 행복해졌나요?

여러분이 다음에 나오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어떻게 행복해졌는지 알려 주세요. (몬슨 회장이 2011년 11월에 전한 연차 대회 말씀을 리아호나 또는 conference.lds.org에서 읽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liahona.lds.org ("Submit Material"를 클릭함)에 제출하거나 liahona@ldschurch.org에 이메일로 보내 주시고, 제목란에 "Follow the Prophet"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이름과 나이, 사는 나라, 부모님 동의서도 함께 보내 주세요.

십일조를 내면 기분이 좋아요

저는 아버지께서 집을 청소하실 때 도와드리고 매달 용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 쓰지 않고 십일조를 10퍼센트를 감독님께 드립니다. 십일조를 내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돈이 예배당을 관리하고 책과 다른 많은 것들을 사는 데 쓰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십일조를 내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십일조를 낼 때 행복합니다.

니콜라스 피, 5세, 브라질

저는 성전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서 빨리 열두 살이 되어서 신권을 받고 성전에 가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움베르토 브이, 11세, 멕시코



빛을 선택하십시오



게릿 더블유 공
장로
철심인



“만일 너희 눈이 순전하여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너희 온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요, 너희 안에 어둠이 없으리니”(고리와 성약 88:67)

저는 어린 소년 시절에 어둠을 무서워했습니다. 종종 밤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러 가기 전에 모든 문을 잠그고 침대 밑을 살펴보았습니다. 옷장 속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무서워하는지도 모르면서 이따금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서 점점 더 위안과 평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밝은 빛과 같은 느낌이 저와 함께함을 느꼈고, 제가 안전하고 괜찮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에게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도 빛에 관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 동생과 저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부모님께 인봉되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흰 옷을 입었다는 것과, 성전 안에서 밝은 빛을 보았고, 그날 평안을 느꼈다는 것이 기억납니다.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어두움을 무서워하던 느낌과, 성전에 있는 빛 속에서 느낀 기쁨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복음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할 때 빛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 안에 어둠이 거할 곳이 없어집니다. 빛과 신앙은 어둠이나 두려움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빛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여기에 나오는 공과와 활동을 활용하면 이번 달 초등학교 주제에 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살아 있는 선지자는 옳은 일을 선택하라고 가르칩니다

크리스티나는 연차 대회 동안 스테이크 센터에 설치된 화면을 통해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말씀을 시청했습니다. 그분은 이웃에 대한 친절함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듣는 동안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몬슨 회장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압니다. 크리스티나는 학교에서

자기에게 불친절했던 친구 '레아'를 생각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레아에게 상냥하게 대하고 친구가 되어 보기로 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전에 사도 베드로를 불러 그분의 교회를 이끌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위한 계시를 받아 그리스도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교회를 이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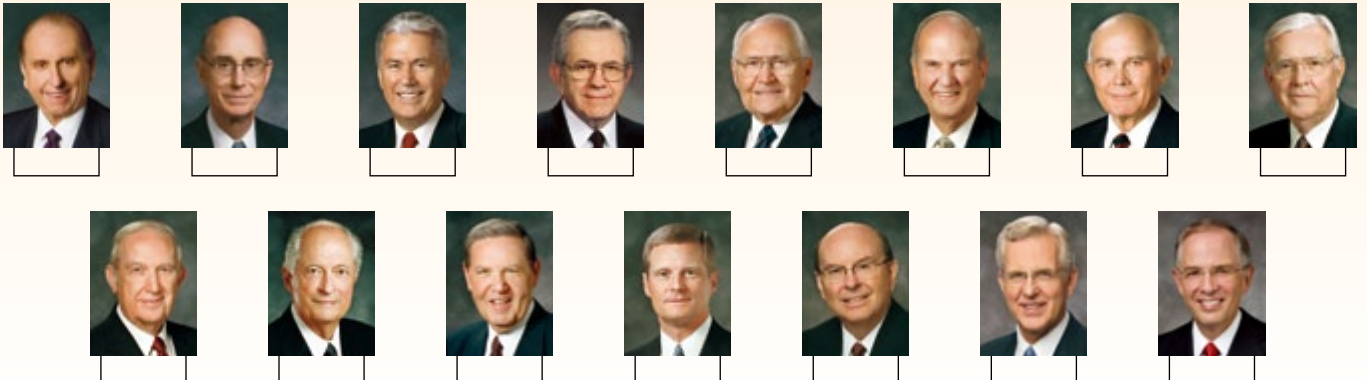
선지자가 말씀을 할 때 주의 깊게 들어 봅시다.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닥칠 어려움과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그분은 늘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므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축복이 돌아올 것입니다. ■

정의반 놀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배우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살아 있는 선지자 열다섯 분이 이끄십니다. 제일회장단인 교회 회장과 두 보좌, 그리고 십이사도 정원회 사도들은 모두 선지자입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의 사진에 알맞은 이름을 짝지어 보세요. 아래 사진들과 65쪽 연단을 오려 내어 두꺼운 종이에 붙이세요. 의자는 점선

부분을 자릅니다. 총관리 직원들의 사진 밑의 흰 부분을 의자의 점선 부분에 꽃아주세요.

연차 대회에서 이들 중 한 분이 말씀하는 것을 시청할 때, 그분 의자 위의 사진을 연단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제1보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제2보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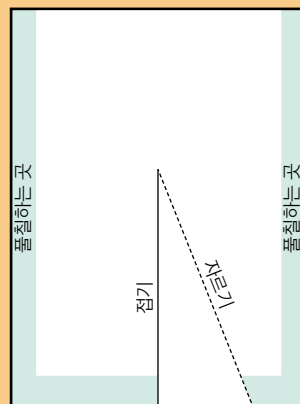


닐 엘 앤더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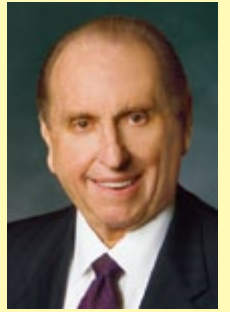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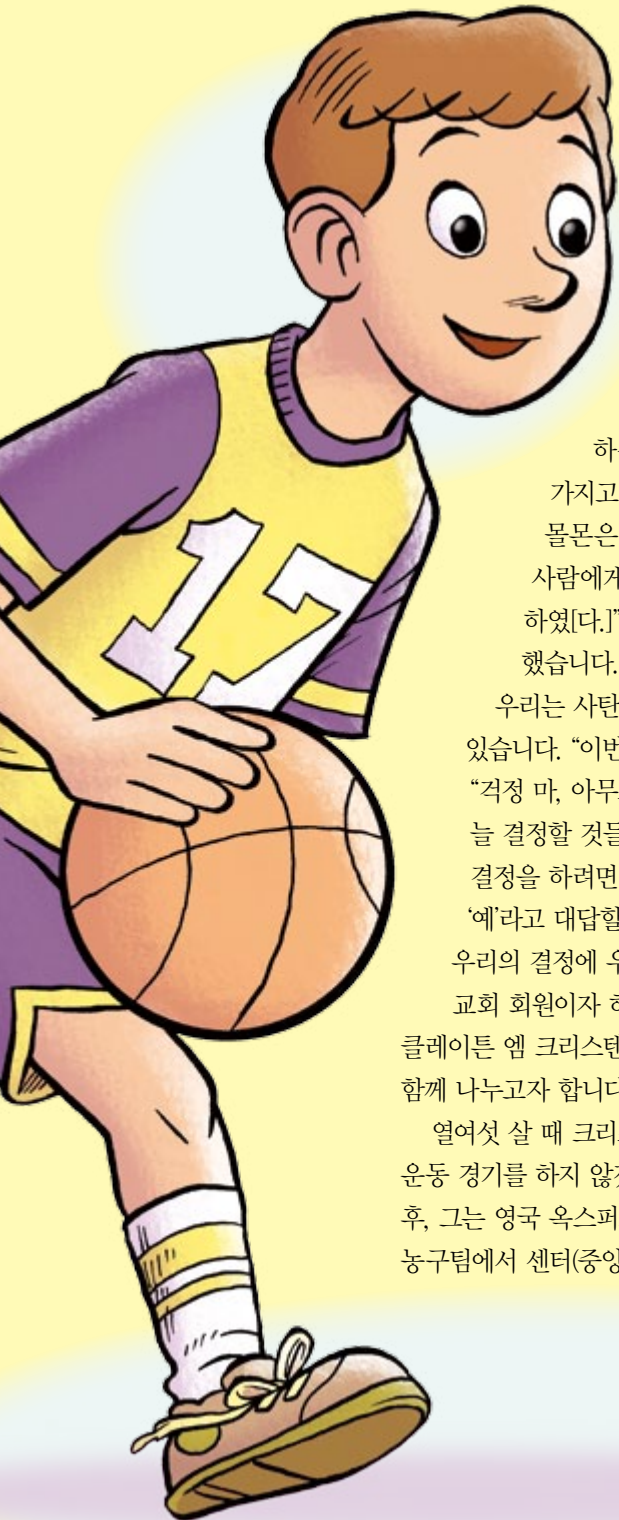
액자를 만들어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 사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진과 액자, 액자 뒷면을 오려 내어 두꺼운 종이에 붙입니다. 액자 뒷면 선을 따라 오리고 접습니다. 액자 양 옆과 밑에 풀을 칠해 사진을 뒷면에 붙입니다. 몬슨 회장님 사진을 밀어 넣습니다.



지금 바로 결정하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저는
선택하지
또는

선택할 권리를
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는 옳은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방편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선지자
몰몬은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하게
하였다.”(모로나이서 7:16)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메시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번 딱 한 번인데 뭐 어때.”
“걱정 마, 아무도 모를 테니.” 우리 앞에는
늘 결정할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현명하게
결정을 하려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고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정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교회 회원이자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클레이튼 엠 크리스텐슨 형제의 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열여섯 살 때 크리스텐슨 형제는 일요일에는
운동 경기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수년
후, 그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다니는 동안
농구팀에서 센터(중앙에서 뛰는 선수-옮김이)로

활약했습니다. 그가 소속된 농구팀은 그
해 시즌에서 무패행진을 했고, 결국 우승
토너먼트에 진출했습니다.

그들은 대회 내내 계속 이겼고 결승전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때 마침 크리스텐슨 형제는
경기 일정을 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결승전이
일요일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코치에게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코치는
크리스텐슨 형제에게 결승전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텐슨 형제는 호텔로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번 한번만 일요일에 운동
경기를 해도 되는지 여쭙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응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클레이튼, 무엇을 바라는 거니? 이미 답을
알잖아.”

그는 코치에게 결승전에서 뛰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후 일요일 모임에
갔습니다.

크리스텐슨 형제는 계명을 100퍼센트 지키는
일이 98퍼센트 지키는 일보다 쉽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목표, 즉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생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바로
지금 결심하시기를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

2010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예 또는 아니요

문 손 회장님은 나쁜 선택에 아니요, 좋은 선택에는 예라고 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에 나온 각 상황에 예 혹은 아니요를 적어 용기 있는 답을 해 보세요.

100퍼센트 수수께끼

문 손 회장님은 의로운 선택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보다 항상, 즉 100퍼센트 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가로줄과 세로줄 숫자 합산이 100이 되도록 숫자를 채워 보세요.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0이나 5로 끝이 납니다.

45	5		20
10		15	
30		25	5
	20	30	

아부, 정직에 대해 깨우치다

앤 피 스미스

실화에 근거

아 부는 대문 밖에 앉아 집 앞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근처에는 달콤한 과자를 파는 마리안 아주머니가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밝은 색깔로 포장된 과자는 맛있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는 과자를 큰 단지에 담아 머리에 이고 다녔습니다. 아부는 과자 한 봉지를 무척 갖고 싶었습니다. 과자가 정말 맛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리안이 걸음을 멈추고서 아부 바로 앞에 과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배고프다는 걸 알고 나를 위해 과자를 여기 놓았네!’라고 생각한 아부는 얼른 과자 한 봉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부, 네 손에 든 게 뭐니?”

“아빠, 배가 너무 고파요! 과자가 먹고 싶어요.”

아버지가 부드럽게 두 팔로 아부를 안아 주셨습니다. “아부, 나도 네가 과자를 좀 먹었으면 한단다. 하지만 값을 치르거나 물어보지도 않고 남의 것을 가져갈 수는 없어. 과자를 좀 먹어도 좋은지 마리안 아주머니께 여쭙보았니?”

“아니요,” 아부가 고개를 숙인 채 답했습니다.

“이 큰 봉지에 든 과자는 아주머니께 돌려드리자.

“내 모든 말과 행동에서 정직은 시작되죠.”

(영문 어린이 노래책, 149쪽 참조)

아빠가 작은 봉지를 사 줄 테니 말이야. 아빠는 네가 정직하게 사는 법을 배웠으면 한단다. 무슨 뜻인지 알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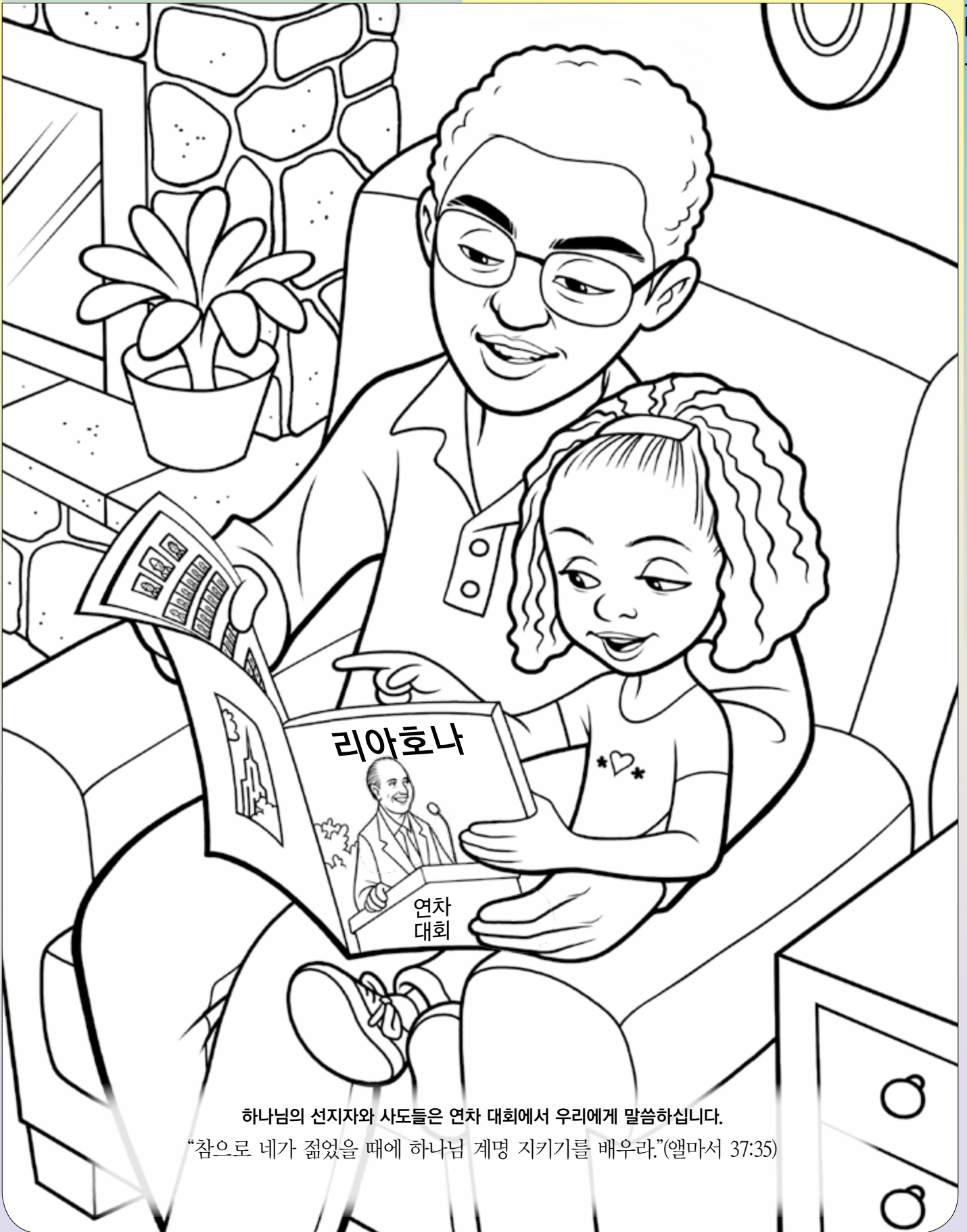
“무슨 뜻인데요, 아빠?”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지.”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직이란 물건을 훔치지 않고 그 값을 내는 것을 뜻한단다. 거짓말이 아닌 진실을 말하는 것이지. 또한 정직은 자기가 하겠다고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마리안 아주머니께 과자 한 봉지 값을 드려야 해. 마리안 아주머니는 아이들에게 줄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그 돈이 필요하단다. 아부, 아빠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도 너를 사랑하시지. 그리고 그분은 네가 옳은 일을 할 때 행복해 하신단다.”

“저도 아빠를 사랑해요. 저는 언제나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도들은 연차 대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네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앨마서 37:35)

성신을 느끼며

채드 이 패러스
실화에 근거

“우리는 성신의 권능으로 참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모로나이서 10:5)

1.

벤슨, 어디 있니?
잠시간이다.

자고 싶지
않아요.

2.

왜 그러니?

제 방에
유령이 있거든요.

3.

네 방에
유령은 없어.

정말이에요?

내가 약속하마.

4.

아빠, 성신이 뭐예요?

그것 참 좋은 질문이구나.

5.



성신은 신화의 한 분이시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실천하기를 바라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신이란단다.

무서운 분이가요?

아니야, 성신은 전혀 무섭지 않아. 우리가 성신을 볼 수는 없지만, 가깝게 느낄 수는 있지. 성신은 우리가 행복한 기분이 들도록 도와주신단다.

6.



자, 이제 눈을 감으렴. 잘 시간이야. 사랑한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또 성신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부모를 위한 도움말: 성신의 영향을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자녀들과 토론합니다. 성신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일을 할 때, 또는 옳은 일을 선택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물어봅니다.

영을 초대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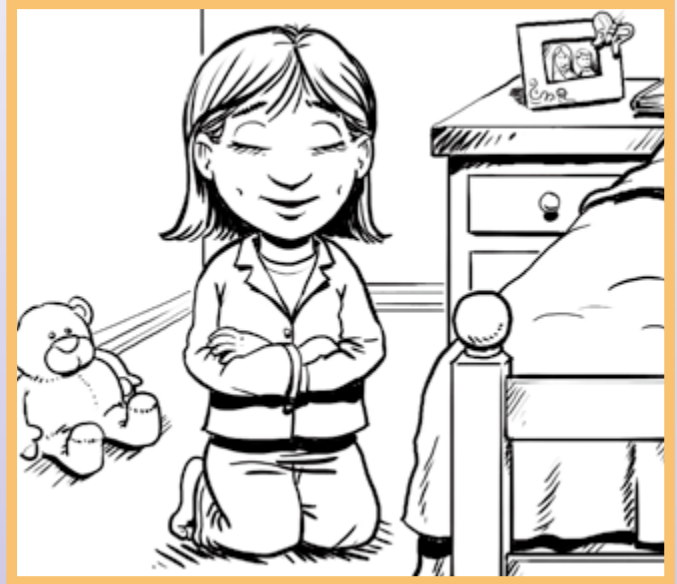
힐러리 왓킨스 레먼

성 신을 초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머물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답니다. 아래 그림에 네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를 골라서 열심히 실천해

보세요. 그런 후 그렇게 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실천해 본 방법은 색칠을 하고 그 다음 것도 해 보세요.



1. 함께 나누다



2. 기도한다



3. 돕는다



4. 노래한다



선지자를 따른다

이 어린이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따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그림에서 다음과 같은 물건들을 찾아봅시다. 연필, 붓, 곰돌이 인형, 포크, 책, 야구공, 토스터, 프레첼 과자, 야구 방망이, 열쇠, 자동차, 돛단배, 칫솔, 당근, 바나나.

교회 소식

더 많은 교회 소식과 기사를 보려면 news.lds.org에 접속한다

기금으로 전 세계 회원들이 성전 축복을 받게 되다

헤더 휘틀 위클리

교회 소식 및 행사

파 키스탄에 사는 리아즈
질은 선교 사업을 위해
싱가포르로 떠나기
직전인 2001년 7월, 필리핀 마닐라
성전을 방문했다. 그 이후로
그는 영원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 그 성전을 다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2007년에 아내 파라가 침례를
받았다. 하지만 경비가 부족해서
두 사람은 5,7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성전에 언제나 갈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였다. 2009년 아들
암몬 파인하스가 태어나면서
성전에서 가족 인봉을 받고자 하는

**교회의 일반 성전 참여자 지원 기금 덕분에 리아즈 질과 아내
파라, 아들 파인하스는 2010년에 필리핀 마닐라 성전에 가서
가족 인봉을 받을 수 있었다.**

소망은 더욱 간절해졌다. 마침내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2010년
말에 응답되었다. 교회의 ‘일반
성전 참여자 지원 기금’을 받게 된
것이다.

“가족과 함께 성전을
방문하면서 제 간증은 더욱 굳건해
졌습니다.” 하고 질 형제는 말했다.
“가족과 함께 성전을 다녀 온
후, 주께 더 바쳐야 할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성전
방문은 참 보람 있는 일이지요.
신앙을 한층 진작시켜 준답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워요.”

질 형제는 성전에 머무는 동안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와 할아버지,
의부를 위한 의식을 행할 수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한 의식을
수행한 후, 부모에게 인봉되었다.

“저와 제 가족이 성전을
방문하게 된 것은 큰
특권이었습니다. 이번에 성전
방문을 성사될 수 있게 해 주신
지도자들에게 저의 특별한 감사와
기도를 전하고자 합니다.”

100퍼센트 회원 기부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이 기금은 1992년
이후부터 미국 및 캐나다 지역
외에 거주하는 회원들이 성전에
갈 형편이 안 되는 경우 성전을
한 차례 방문할 수 있게 해
주는 방편이 되었다. 이 기금에
기부하고자 하는 회원들은 현금

명세서 용지 ‘기타’란에 ‘성전
참여자 지원 기금’이라고 쓰기만
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후기 성도
자선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
기금에 기부할 수 있다.

2011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회원들이 ‘일반 성전
참여자 지원 기금’에 기부해줄 것을
권고했다. “여전히 성전이 너무
멀어서 경비가 부족해 가지 못하는
회원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전에서 누릴 수 있는 성스럽고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며”,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5쪽)

“이 기금의 취지는 성전에
가기가 매우 어려운 세계 여러
지역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라고 본부 성전부 집행
책임자 윌리엄 알 워커 장로가
설명했다. “한 차례 자금 지원을
하여 특정 개인이 자신의 의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기금 지원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 몇 곳을 꼽는다면 아프리카와
태평양, 아시아를 들 수 있다고
워커 장로는 말한다. 스테이크
회장과 선교부 회장이 나라별 기금
관리를 맡는 해당 지역 회장단에게
신청한다.

2009년과 2010년에 대략
4,000명이 이 기금을 사용하여



리아즈 질의 가족을 위한 성전

처음으로, 어쩌면 생에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성전 방문을 하였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고자 수혜자들은 “가장 저렴한 항공료 부담으로 갈 수 있는 성전을 찾습니다. 따라서 방문 성전 선정은 거리나 그들 지역에 성전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워커 장로는 말한다.

기금을 사용하는 회원 각자는 모종의 희생이나 기부를 하게 된다.

“일부 지역의 경우 여권을 발급 받는 것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고 꽤나 까다롭습니다.”

하고 워커 장로는 말한다. “또 일부 지역은 회원들이 성전 방문을 위해 외국으로 나가야 되고, 이런 경우 당사자는 자신의 여권을 준비해야만 이 기금을 쓸 수 있습니다. 몇몇 나라의 경우 금액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보면 그 금액은 대단치 않은 액수처럼 보이겠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여섯 달 동안 다 털어서 모아야만 되는 금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개 보면 목표액 달성을 위해 열심히 참여하는 회원들이 더 감사하게 여긴다고 워커 장로는 말한다. “사례를 보면 거의 모든 경우 최선을 다해 참여한 사람들이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당사자들이 지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기금으로 당사자들이 성전에



갈 수 있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 외에 각 개인 당 가먼트 일곱 벌을 구매할 수 있다. 그렇게 하여 당사자들이 집에 돌아오면 성약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선지자가 연단에서 이 기금에 관해 발표하기로는 몬슨 회장이 이번 대회에서 말씀한 것이 처음이었다. 기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겠지만 선지자의 이번 말씀으로 기금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워커 장로는 말한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지역이 많습니다.” 하고 그는 말한다. 합당한 회원들 모두가 성전 추천서를 지녀야 한다고 하워드 더블유 헌터(1907~1995) 회장이 1994년에 전한 권고를 인용하며(“우리가 교회 회원임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상징,” 성도의

벗, 1994년 11월호, 2쪽) 워커 장로는 이렇게 덧붙였다. “유효한 성전 추천서가 있으나 아직 성전에 가보지 못했고 가까운 장래에 성전에 갈 수 있다는 희망도 보이지 않는 충실한 교회 회원이 많습니다.”

몬슨 회장이 기금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성전을 사랑하고 기금 수혜자인 성도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워커 장로는 말한다.

“오지에 가보면 그곳 사람들에게 대한 연민과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고 워커 장로는 말한다. ■

필리핀 마닐라 성전



독일 베터라우 세미나리에 참석한 학생들

전 세계 세미나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복음에 뜻을 내리는 학생들

멜리사 메릴
교회 소식 및 행사

포 르투갈에 사는 밀톤 레이스는 지역 예배당으로 간다.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에 사는 프레이저 클러프는 어머니를 교사로 모시고 집에서 출석한다. 미국 유타 주에 있는 로렌 호머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하면서 격일로 큰 길을 건너 세미나리에 참석한다. 미국 버몬트 주에 사는 벤 길버트는 매주 상호 향상 모임 직전에 세미나리에 참석한다. 미국 앨라배마 주에 거주하는 매켄지 모릴은 웹 컨퍼런스를 이용하여 매일 세미나리에 참여한다. 한국에 사는 박다운은 오후 10시에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반면, 미국 뉴멕시코 주 제이미 그린우드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전 5시 15분에 시작되는 세미나리에 제 시간에 참석할 수 있다.

이상 언급한 10대 청소년 모두와 그들과 같은 37만에 가까운 다른 청소년들이 선지자의 권고에 따라 자신의 생활에서 세미나리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세미나리 프로그램은 그 동안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요구와 지역 사정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시간과 거리를 초월하여 변함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십대 청소년들이 복음 공부로 구주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포르투갈에 사는 열일곱 살 밀턴 레이스가 처음 세미나리에 참석하기 시작했을 때, 또래 청소년 몇몇이 토요일마다 따로 만나고 있었다. 그들 중 대부분이 날마다 훈련이나 기타

일정이 필요한 스포츠와 과외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밀턴은 주중에 등교하기 전이나 방과 후에 세미나리에 참석했다. 따라서 밀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저녁 공과에 참여하기 위해 사교 활동을 포기해야 했다.

그러나 밀턴은 세미나리를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건 “특권이나 다름 없어요.”라고 말한다. 밀턴은 현재 선교사로 봉사하는 누나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한다. 세미나리는 그러한 준비 과정의 한 방편이다. “그와 같은 여러 어려움 모두 헤쳐나갈 가치가 있습니다.” 하고 그는 말한다.

필리핀에 사는 열여덟 살 청녀 디아 라크노는 14세 때 침례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세미나리 공과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세미나리 수업이 숙제와 수업, 그리고 그에 따른 압박감 등을 겪어야 하는 전형적인 학교 교과 과정과 같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젠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세미나리에서 얻은 힘으로 학교에서 받는 그 모든 부담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저는 세미나리에 참석할 때마다 새 힘을 얻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전 세계 세미나리 학생들의 희생과 성공에 대한 기사를 읽으려면 news.lds.org에 접속해서 “세미나리 프로그램으로 복음에 뜻을 내리는 학생들”을 검색한다. ■

news.lds.org에 들어가면 1월 22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과 함께한 “세미나리 100주년 기념” 노변의 모임에 대한 기사를 읽을 수 있다.

청년 성인들에게 빛이 되라고 촉구하는 선지자

2011년 11월 1일 프로보 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 모임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청중에게 “의로운 모범”이 되라고 권고했다.

신약에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디모테전서 4:12)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며, 몬슨 회장은 교회 회원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빛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뭔가 환하게 비추는 것’이라는 단순한 정의가 좋습니다. 의로운 모범이 되어 …… 점점 더 어두워지는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추었던 빛이 희미해지면서 거의 꺼진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빛을 환하게 밝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오게 하는 것이며, 그러려면 우리가 신앙에서 본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했다.

“어떻게든 영적인 생명의 불씨를 지펴서 환하게 빛을 내고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게 하려면 신앙을 키워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신앙과 의심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앙을 키우고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몇 가지를 꼽는다면 경전 읽기와 연구 및 꾸준한 기도를 들 수 있다고 몬슨 회장은 말씀했다.

몬슨 회장은 “물문경을 읽어보셨습니까? 모로나이서에 나오는



몬슨 회장은 프로보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전한 영적 모임 말씀에서 회원들에게 물문경을 읽고 그것이 참된지 스스로 알아보라고 권고했다.

약속을 시험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며 청중에게 날마다 시간을 내어 물문경이 참된지 스스로 알아보라고 권고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몬슨 회장은 “그러므로 너희 빛을 이 백성 앞에 비취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제3니파이 12장 16절을 인용하며, 그리스도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요한복음 1:9)이시며 “어둠에 비치[는](요한복음 1:5)빛이시라고 말씀했다.

“빛을 밝힐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 구주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이웃의 삶을 위한 빛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그는 말씀을 마무리했다. ■

prophets.lds.org나 news.lds.org에 들어가면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사도들의 최근 방문 소식과 말씀에 대한 내용을 더 볼 수 있다.

의료 용품을 포장하는 에티오피아 회원들

2011년 10월 1일, 70여 교회 회원들이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메가나그나 집회소에 모여 약 다섯 시간 동안 의료 용품 5천 세트를 포장했는데, 이것을 아프리카 북동부 가뭄 피해를 입은 동포 에티오피아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에티오피아 국경 내 주민을 돕고자 교회가 벌이는 사업의 한 예이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지역 회원들과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북동부에서 가뭄 피해를 입은 동포 에티오피아인들에게 전달할 의료품 5천 세트를 꾸리는 일을 거들었다.



사진 촬영: 토빈 오크리올리 지매

새로운 지도자 훈련 비디오 자료실 개설

본부 신권부는 최신에 나온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에 대한 참여적 보충 자료로 '지도자 훈련 자료실'을 발표했다. 본 자료실은 짙막한 훈련 비디오 온라인 모음집으로, 지침서에 담긴 원리를 강조한다. 이 새로운 자료는 웹사이트 leadershiplibrary.lds.org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올해 이 자료를 11개 언어로 제공할 예정이다.

선교 사업 50주년을 기념하는 칠레

2011년 10월, 칠레에서는 교회의 공식적인 현지 선교 사업 50주년을 기념하여 일주일간 축하 행사가 열렸다.

칠레 지역 회장단이 기념 행사를 주관하고, 10월 15일 토요일에 말씀을 전함으로써 축제는 절정에 이르렀다.

이 행사에 참여하고자 2만여 회원들이 산티아고 산타 라우라 경기장에 모였다. 경기장에서 말씀과 노래, 연극, 민속 춤을 포함한 축제를 벌여 칠레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칠레에서 교회가 성장한 것을 축하하였다. ■

지도자들이 11월 방송에서 라틴계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다

2011년 11월 13일 일요일, 라틴 아메리카계 회원을 위해 교회가 개최한 "그분의 사랑의 빛 안에서"라는 영적 모임에서 칠십인 클라우디오 디 지빅 장로와 남 유타 지역 칠십인 게리 비 닥시 장로가 말씀을 했다.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교회 회원들과 그들의 친구들이 컨퍼런스 센터에서, 그리고 북미와 중남미의 여러 집회소에서 이 영적 모임에 동참하였다.

지난 8년 간 교회는 점점 커져가는 라틴계 성도들을 중점을 둔 영적 행사를 해마다 개최해왔는데, 이 행사에는 성탄절 연주회와 영적 모임, 연극 순서도 포함되어 있다. 연례 영적 모임 프로그램이 미국 지역 이외 집회소로 생방송되기는 2011년에 개최된 영적 모임이 처음이었다.

제일회장단을 만난 온두라스 영부인

2011년 11월 8일 화요일, 온두라스 공화국 영부인 로사 엘레나 보닐라 데 로보 여사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과 제일회장단 제1보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을 만났다. 영부인은 이 만남을 "커다란 특권"이라고 했다.

교회 본부를 방문한 영부인은 템플 스퀘어와 가족 역사 자료실, 컨퍼런스 센터, 교회 인도주의 센터, 복지 스퀘어를 돌아보았다.

영부인은 최근에 온두라스가 격심한 홍수 피해를 입었을 때 교회가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바로 2주 전에 여러분은 폭우와 홍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식량 9만 톤을 전했고, 그 외에도 여러분의 교회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국경을 초월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

2011년 11월 8일 온두라스 영부인 로사 엘레나 보닐라 데 로보 여사가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시설을 둘러 보았다.



OR



이 책은 아름다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리아호나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 선지자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저는 *리아호나*를 읽을 때 영을 느끼며 인도를 받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잡지에 감사합니다. 이 책은 저에게 감미로운 말씀을 전해줌으로 제 생활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마리안나 다 그라카 오거스토, 모잠비크

메시지가 저를 강화하고 새롭게 합니다

저는 *리아호나* 잡지를 즐겨 읽습니다. 살아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상고할 때 제 간증은 강화되고 새로워집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며 계시라는 것을 영이 저에게 증거해줍니다. 이 시대에 그분이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제임스 러셀 크루즈, 필리핀

구조의 손길

모든 성도들은 저활동 회원에게 구조의 손길을 내밀라고 하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권고에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선지자의 말씀으로 성신의 영향을 느꼈습니다.

길레르모 바스케즈 오캄포

의견이나 제안을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내용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 14쪽: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찬송가, 6장)을 부르며 가정의 밤을 시작할 수 있다. 이 기사를 함께 읽거나 미리 적절한 구절을 선정하여 읽는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에 관해 깨달은 점이 무엇인지 가족에게 질문한다. 가족 모두에게 연필과 종이를 나눠주고, 살아 있는 선지자 몬슨 회장에 관한 각자의 간증을 적어보게 한다. 가족이 성실한 기도를 통해 그 간증을 강화하도록 권민한다. 가정의 밤을 마치며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찬송가, 182장)를 부를 수 있다.

“전 세계를 향한 색인 작업 요청”, 34쪽: 기사를 미리 읽어본다. 가족 역사 사업을 하는데 FamilySearch 색인 작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더 많은 색인 작업자가 필요한지 가정의 밤 시간에 설명을 한다. 집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있다면, indexing.familysearch.org에 접속한다. 색인 작업을 해보지 않은 가족을 위해 계정을 만들어준다. 얼마간 함께 색인 작업을 해본다.

“선지자를 따르라”, 42쪽: 가족을 위해 이 기사를 요약한다. 기사 마지막 부분에서 “선지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다”를 함께 읽어볼 수 있다. 선지자의 인도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베넷 장로가 말한 구절을 눈여겨 본다. 가족이 다음 달 연차 대회에서 그와 같은 구절을 귀담아 듣도록 권한다. 선지자 말씀에 따랐던 여러분의 간증을 전하며 모임을 마칠 수 있다.

“홀로 있더라도 절대 혼자 아닙니다”, 54쪽: 가족이 주님의 표준대로 살고자 할 때 외롭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질문하며 가정의 밤을 시작한다. 그와 같은 느낌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는가? 완 카브레라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달리, 계명을 지킬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순종으로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누군가 발표해 보도록 권할 수 있다.

“지금 바로 결정하십시오”, 66쪽: 자녀들과 같이 이 기사를 읽고 “예, 아니오” 방식으로 질문에 답하도록 한다. 울음과 그림을 선택해야 하는 또 다른 시나리오를 생각해내어 그들이 각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한다. ■

영감을 준 유아반 교재

제 기억에 남은 제일 멋진 가정의 밤은 유아반 교재에 소개된 활동으로 시작한 가정의 밤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우리의 귀엽고 어린 딸들과 함께 활동 구절을 지어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키가 아주 아주 커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알고 사랑하세요. 키가 아주 아주 작아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알고 사랑하세요. 크거나 작거나 크거나 작거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알고 사랑하세요.” 소리 내어 읽으면서 저희는 몸을 작거나 크게 만들어서, 몸집의 크기에 상관없이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점을 표현했습니다.(*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라*[2008], 9쪽 참조)

곧이어 아이들과 남편이 과일 파이를 가져와 모두 같이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척이나 신나게 놀았고, 그 주일 내내 ‘작은 사람-큰 사람’ 놀이를 더 하자고 즐겼습니다.

가정의 밤 묘미는 개방성에 있습니다. 어린 식구들이 있는 저희 집의 가정의 밤은 간단하고 금세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친절, 함께 기도하기와 같은 기본 원리를 깨우쳐 주고자 합니다. ■

발렌티나 포틀란 시모노비치, 이탈리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

미셸 게라

실 연의 아픔으로 큰 상처를 입은 나는 언니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보니 몸에 별로 좋지 않은 음식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낮잠을 자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한번은 낮잠을 자다 일어나서 “우린 서로 잘 맞는 사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라고 말하기도 했다. 언니와 나는 소리를 내어 웃었지만 그날 밤 나는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언니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나는 내 삶에서 전진해 나아가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도록 깨달음을 얻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그 후 몇 달에 걸쳐 한 번에 한 가지의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왔다.

그 다음날 상호부조회 모임 중, 특별한 성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또 다른 이들은 그가 달래며, 속여 가서 육신에 속한 안전에 거하게 하리니,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도다, 참으로 시온은 번성하나니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도다 할 것이라…… 그러므로 시온에서 안일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니파이후서 28:21, 24) 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시늬만 하는 교만한 사람을 묘사하는 것이라고만 여겼다. 나는 그토록 많은 시간을 언니와 함께 보내는 나 자신을 시온에서 안일하게 지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치유를 구하기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편안한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런 결심이 도움이 되긴 했지만 편안한 생활에서 벗어나자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



나는 실연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알기 위해 기도했다. 그런데 또 다른 상한 마음이 그 응답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자신을 더 탓하게 되었다. 이런 느낌을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는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니?” 하고 말했다. 친구의 말은 결점이 있는 나를 조금 더 용서하고 싶다는 소망을 심어 주었다. “시온에서 안일한” 이들과처럼 마냥 만족해하지 않고 말이다.

어느 날 몰몬서 2장 13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다음 말씀, 즉 “그들의 슬퍼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회개에 이르는 것이 아니요, 그보다는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죄 중에서 행복을 취함을 항상 용납하지 아니하려 하심으로 인한 정죄 받은 자들의 슬퍼함이었음이라. 또 그들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수께 나아오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는 구절을 읽다가 불현듯 깨달음을 얻었다. 실패했다는 느낌이 나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어떤 종류의 슬픔이 적합한 것인지를 새삼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에 대한 답을 찾은 것은 주일학교에서였다.

주일학교 교사는 칠판에 선을 하나 긋고 한쪽 끝에는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다.”라고 적고 다른 한쪽 끝에는 “먹고 마시고 즐긴다.”라고 썼다. 우리는 이 두 극단을 피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 선 한가운데에는 어떤 말이 들어갈까 하고 생각하는데, 영이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구절을 떠올리게 해주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경향에 대한 해결책은 통회하는 심령으로 묘사될 수 있는 것 같았다. 바로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들이며 그분의 자비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온에서 안일하게 지내는 것에 대한 구체적은 상한 심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것은 바로 변화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동기를 부여받는 것을 말한다.

구주께서는 “너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내게 희생으로 드릴지니”(제3니파이 9:20)라고 가르치셨다. 나는 시온에서 안일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또 나 자신을 심하게 비판하지 않기 위해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것은 주님이 받아들이시는 희생을 하는 것이며, 그런 희생으로 나는 내 삶을 계속 살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한다. ■

붙이기

해 리아호나에는 물몬경 경전 인물들이 실리게 됩니다. 각 인물을 잘라내어 두꺼운 종이나 판지, 종이 봉투 또는 작은 막대기에 풀이나 테이프로 붙여 사용하면 됩니다. 등장 인물 이야기가 나오는 경전 구절이 적힌 라벨과 함께 각 경전 인물 세트를 봉투나 가방에 넣어 보관해 두세요.



아빈아다이



엘마



노아 왕과 그의 제사들

아빈아다이와 노아 왕
모사이야서 11~17장



몬슨 회장이 말씀하시듯, 조직이란 그 지도자가 뜻하는 바에 힘을 실어주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 조직을 구성하는 우리 후기 성도들은 이웃 한명 한명을 구조하고 함께하며 북돋우고 고양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은 구주의 모범을 반영하는 것이다. 경전에 나오듯이 주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사도행전 10:38) 우리 선지자에 대해 배우고 손을 뻗어 구조하려는 그분의 능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려면, 14쪽의 하이디 에스 스윈튼의 기사,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인생 경험”을 참조한다.